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2014년
10월

10월의 재난발생 현황분석

- 자연재난 | 호우, 강풍·풍랑 발생 빈도 및 피해현황
- 사회재난 | 산악사고 및 농기계 안전사고 피해현황
- 소방활동 | 화재분석 및 구조구급 통계분석

최근 발생한 주요재난사고

- 경북 경주 북군 저수지 제당 누수사고
- 경기 부천 오피스텔 화재사고

과거 주요 재난사례 분석

-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 2005년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사고

기획특집

- 지진(地震)

재난관리 정보마당

- 강풍 대비 행동요령
- 풍랑 대비 행동요령
- 산악사고 예방요령
- 농기계 안전관리 요령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10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요약

10월은 호우, 강풍·풍랑 등 자연재난과 가을 단풍철 및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산악·농기계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이 기간에 발생한 재난을 종합적으로 분석·전망,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 사전대비 및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기상전망과 사회적 여건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일교차가 크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하겠음
- 단풍철을 맞아 지역 축제가 많은 기간으로 산악 및 축제장 안전사고 증가가 우려되고, 가을 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 증가가 예상되어 사전예방 활동이 필요한 시기

재난피해 현황분석

【자연재난】

◆ 최근 10년('04~'13년)간 자연재해는 총 174건으로 282명의 인명피해, 7조 3,199억원의 재산피해 발생함. 그중 10월은 8건, 12명의 인명피해와 843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가. 강풍·풍랑

- 최근 10년('04~'13년)간 10월에는 강풍(2회), 풍랑(3회)으로 인해 11명의 인명피해와 127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10월중 가장 큰 피해사례는 '05.10.21~10.24기간동안 울산·강원·경남 지역에서 강풍에 의한 높은 파도로 인해 사망·실종 11명과 재산 84억원의 피해가 발생함 (최대순간풍속 울릉도 29.8m/s)
- ➡ 강풍·풍랑 대비 기상상황 모니터링 강화, 기상 예비특보 단계부터 시설물 사전 보호조치 등 피해예방 대책 추진

나. 호우

- 최근 10년('04~'13년)간 호우로 인한 피해 80건중 10월에는 2건으로 인명피해 1명과 재산피해 699억원이 발생
 - 주요 피해사례로는 '06.10.22~10.25 기간동안 4일간 지속된 강우로 1명 사망, 699억원의 재산피해 발생(강릉 317.5mm, 속초 258.5mm)
- ➡ 강우 사전예측 및 다우지역 특별 관리를 통한 저지대 상습침수 위험지역 주민, 가을철 행락객 및 야영객 등의 사전대피 조치 필요

【사회재난】

- ◆ 최근 5년('08~'12년)간 발생한 사회재난은 144만여건 중 10월은 25,943건 발생
 - 가을 단풍 절정기를 맞아 산행인구 증가로 인한 산악사고와 수확기에 농기계 안전사고 증가

가. 산악 사고

- 최근 5년('09~'13년)간 국립공원 탐방객수는 총 19,345만여명으로, 단풍철 행락객 증가로 10월에는 전체의 15%(2,906만여명이 산을 찾음)로 단풍철 행락객 급증
 - 최근 5년('09~'13년)간 산악사고로 총1,740명(사망 110, 부상 1,630)의 인명피해 발생
 - 10월은 산악사고가 연중 가장 많은 18.1%의 315명(사망 11, 부상 304)의 안전사고 발생
- ➡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다발지역 탐방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안전산행요령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나. 농기계 사고

- 최근 4년('09~'12년)간 총 4,065건 발생, 인명피해 총 4,012명(사망 354, 부상 3,658)으로 매년 지속적 증가
 - 10월에는 가장 많은 14.8%인 603건이 발생, 원인별로는 운전부주의 47.3%로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36.4%가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
- ➡ 농기계 사전 안전점검 및 정비와 안전교육 실시,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부착과 음주음전 금지 등 예방·홍보 강화 필요

【소방활동】

◆ 최근 5년('09~'13년)간 화재는 총 217,232건, 10월은 평균 3,246건으로 사망 21명, 재산피해 219억원 발생

◆ 최근 5년('09~'13년)간 구조·구급 활동사항, 10월 평균 구조 활동 25,349건, 구급 활동 119,941건 발생

- 가을철에는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행락객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

※ 5년평균('09~'13) 연간 구조건수/인원 : 34만건/10만명, 출동건수/이송인원 : 208만건/149만명

가. 화재

- 장소별로 주택 904건(27.8%), 야외소각 676건(20.8%), 자동차 444건(13.7%), 음식점·서비스 342건(10.5%) 등 순으로 발생
- 원인별로 부주의 1,511건(46.6%), 전기적요인 692건(21.3%), 기계적요인 338건(10.4%) 등으로 나타남

➡ 가을철 큰 일교차로 난방기기 사용증가에 의한 화재와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대형화재에 대비한 예방·홍보 강화 필요

나. 구조·구급

- 최근 5년('09~'13)간 평균 10월 중 구조·구급 통계 분석한 결과
 - 구조 출동건수(25,349건)는 전월(42,746건)에 비해 40.7%(17,397건) 감소
 - 구급활동(119,941건)은 전월(120,959건)보다 0.8%(1,018건) 감소,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123,764명(6.4%, 765명) 증가

➡ 가을철 산악사고와 농작물 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 증가로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며, 나들이객 교통사고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홍보 강화 필요

Contents

1. 기상전망 및 사회적 여건	1
2. 10월 재난발생 현황 분석	
(1) 자연재난	5
(2) 사회재난	10
(3) 소방활동	17
3. 최근 발생한 주요재난사고	
(1) 경북 경주 북군저수지 제당 누수사고	20
(2) 경기 부천 오피스텔 화재사고	21
4. 과거 주요 재난사례 분석	
(1)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22
(2) 2005년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사고	23
5. 기획특집	
(1) 지진(地震)	24
6. 재난관리 정보마당	
▷ 강풍 대비 행동요령	30
▷ 풍랑 대비 행동요령	31
▷ 산악사고 예방요령	33
▷ 농기계 안전관리 요령	35
7. 주요 언론보도 사항	
(1) 2014년 9월 주요 언론보도 사항	39
(2) 2013년 10월 주요 언론보도 사항	46

1 기상전망 및 사회적 여건

기상전망

I 10월 기상전망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일교차가 크겠음

날씨 전망

- (1주)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며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2주)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 (3주)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하겠음
- (4주)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기온 및 강수량

기간 \ 요소	평균기온				강수량			
	평년 (℃)	확률(%)			평년 (mm)	확률(%)		
		낮음	비슷	높음		적음	비슷	많음
1주 (09.29~10.05)	17.1	25	40	35	17.9	50	30	20
2주 (10.06~10.12)	16.0	20	50	30	15.0	20	45	35
3주 (10.13~10.19)	14.5	25	40	35	9.7	40	35	25
4주 (10.20~10.26)	12.7	30	40	30	9.0	30	40	30

II 3개월 기상전망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12월에는 기온 변화가 크겠음

☐ 날씨 전망

- (10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일교차가 크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하겠음.
- (11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겠으며,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 변화가 클 때가 있겠음.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서는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하겠음.
- (12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화가 크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엘니뇨 전망 :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을 또는 초겨울에 엘니뇨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해수면온도 편차 : 8월 +0.3℃, 9월 7~13일 +0.6℃

* 엘니뇨 정의 : 엘니뇨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 3.4 지역 : 5°S~5°N, 170°W~120°W)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4℃ 이상으로 나타나는 달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의 시작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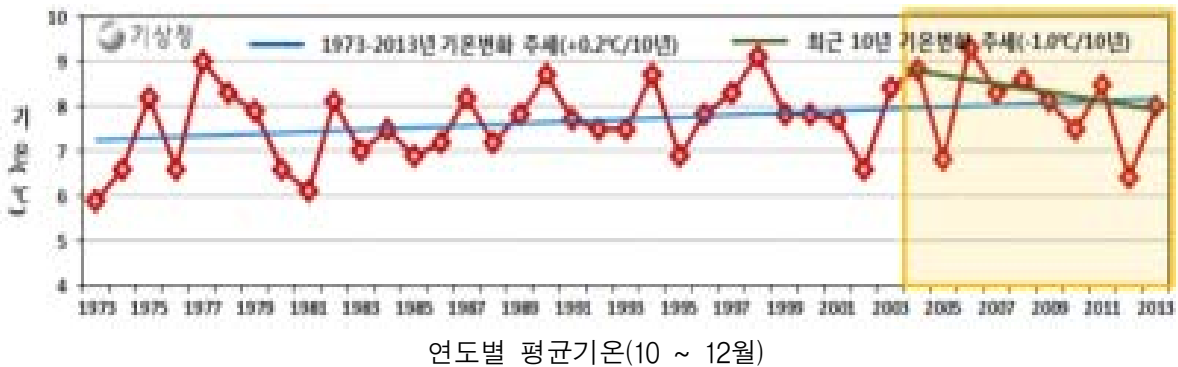
☐ 기온 및 강수량

기간 \ 요소	평균기온			강수량				
	평년 (℃)	확률(%)			평년 (mm)	확률(%)		
		낮음	비슷	높음		적음	비슷	많음
10월	14.3	20	45	35	50.2	40	35	25
11월	7.6	20	30	50	46.7	25	35	40
12월	1.5	30	30	40	24.5	40	30	30

●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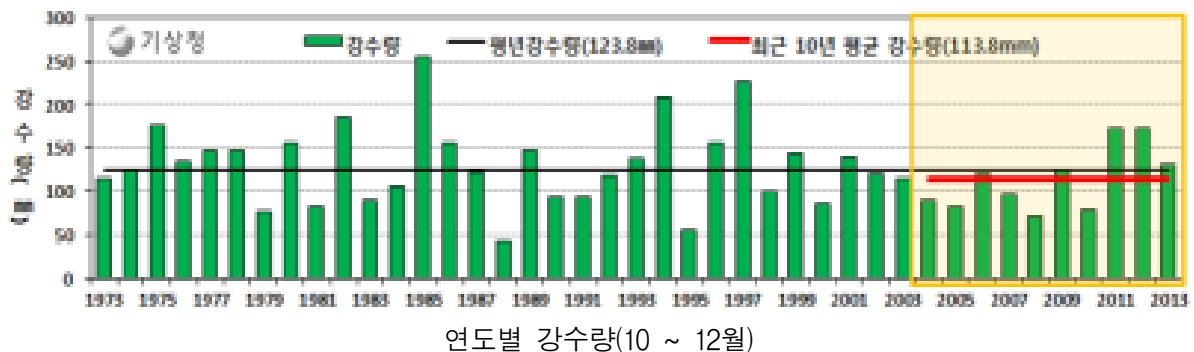
- 최근 10년(2004~2013) 평균기온은 8.0℃로 평년(7.8℃)보다 0.2℃ 높았음.

* 최근 10년 평균기온 변화 추이(℃/10년) : 10월 -0.4, 11월 -1.1, 12월 -1.4)



● 강수량

- 최근 10년 평균강수량은 113.8mm로 평년(123.8mm)대비 92%를 기록하였음.



●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단위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평년편차)	℃	15.0 (+0.7)	8.1 (+0.5)	1.0 (-0.5)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	21.4 / 9.7	13.9 / 3.1	6.2 / -3.5
강수량 / 강수일수	mm / 일	41.1 / 5.2	45.2 / 7.5	27.5 / 7.4
일조시간	시간	205.5	171.8	171.5
일교차 10℃ 이상 일수	일	20.6	16.5	13.4
일최저기온 0℃ 미만 일수	일	0.4	8.6	23.6

* 기온·강수량은 45개 지점, 일조시간은 20개 지점 평균임 / 평년기간 : 1981~2010년

↙ 사회적 여건

10월은 단풍 절정기로 산을 찾는 사람과 지역 축제 개최에 따른 행락객 증가로 산악사고와 축제장 안전사고 증가가 예상되고,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 가을철 국립공원 탐방객('13년 기준, 총 4,300만여명)은 10월 648만여명, 11월 524만명, 9월 300만여명 순으로 10월이 가장 많음
 - 올해 단풍은 설악산을 시작(9.28)으로 중부지방과 지리산에서는 10월 3~18일, 남부지방은 10월 14~27일부터 첫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단풍 절정 시기는 첫 단풍 이후 2주 정도 뒤에 나타나는데 설악산과 오대산은 10월 18~19일, 중부지방과 지리산에서 10월 25~30일, 남부 지방에서는 10월 28일~11월 11일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지역별 다채로운 축제개최로 전국적으로 행락객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행사장 안전사고 발생 위험 상존
- 본격적인 수확기가 시작되면서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이 집중되면서 농기계 안전사고 증가 우려
- 10월에서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벌어지는 일교차로 인한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증가 우려되고 특히, 다중이용업소 및 판매시설 등 대형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

2 10월 재난발생 현황 분석

자연재난

I 자연재난 분석

10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많은 가운데, 호우, 강풍·풍랑 등에 의한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필요

기상상황

- 최근 10년('04~'13년)간의 기상특보 발표현황을 보면, 10월에는 527건의 특보가 발령
- 전체 특보 횟수 527건 중 강풍·풍랑이 80.1%(422건)으로 가장 많고, 호우·태풍이 17.1%(90건)이며 그 외 건조, 한파 순으로 나타남

【최근 10년('04~'13년)간 기상특보 발표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4,125	1,401	1,066	1,265	1,103	666	654	2,193	2,078	1,016	527	1,005	1,151
태풍	450	-	-	-	-	-	14	89	140	184	23	-	-
호우	4,210	7	18	60	116	205	427	1,544	1,281	424	67	54	7
대설	1,467	475	294	204	13	-	-	-	-	-	1	83	397
강풍	2,402	205	211	325	370	169	71	149	148	124	145	293	192
풍랑	3,598	409	337	419	382	184	127	174	241	268	277	453	327
건조	812	138	138	148	171	56	-	-	-	-	7	75	79
해일	35	-	-	-	-	-	4	7	21	3	-	-	-
한파	404	167	53	28	-	-	-	-	-	-	7	21	128
황사	246	-	15	81	51	52	-	-	-	-	-	26	21
폭염	501	-	-	-	-	-	11	230	247	13	-	-	-

자연재해 분석

- 최근 10년('04~'13년)간 월별 자연재해 발생현황은 총 174건의 자연재난으로 282명 인명피해와 73,199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10월은 8건 발생하여 12명(4.3%) 인명피해와 843억원(1.2%) 재산피해 발생

【최근 10년간('04~'13) 월별 자연재난 발생현황 - 재해연보】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 수	174	12	14	16	12	3	11	35	28	14	8	7	14
인명피해 (명)	282	-	-	1	-	-	6	173	44	32	12	-	14
재산피해 (억원)	73,199	545	558	7,702	397	9	2,348	29,457	16,133	9,176	843	121	5,910

- 가장 피해가 컸던 자연재해는 '06년 호우로 인한 피해(인명 1명, 재산 699억원)와 '05년 강풍으로 인한 피해(인명 11명, 재산 84억원)가 발생
- 10월 호우·강풍의 횟수는 7~9월에 비해 적지만 일단 발생하면 적지 않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비한 사전 예방활동 추진 필요

1 강풍·풍랑

【현 황】

- 최근 10년('04~'13년)간 강풍·풍랑 피해는 총 39회가 발생하여 12명의 인명피해와 1,365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최근 10년('04~'13년)간 월별 강풍·풍랑피해 발생현황 - 재해연보】

구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39	2	4	9	10	2	-	1	-	-	5	4	2
인명피해 (명)	12	-	-	1	-	-	-	-	-	-	11	-	-
재산피해 (억원)	1,365	110	120	412	367	9	-	42	-	-	127	106	72

【분 석】

- 10월 강풍·풍랑으로 인한 피해는 5건의 11명의 인명피해와 127억원 재산피해 발생

【최근 10년('04~'13년)간 10월중 강풍·풍랑 피해현황 - 재해연보】

기 간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억원)	주요 피해지역
합 계	11	127	
'05.10.21~10.24	11	84	울산, 강원, 경남
'09.10.16~10.18	-	20	인천, 경기, 충남, 전남북
'09.10.07~10.10	-	2	부산, 울산, 경기, 강원, 경남북
'09.10.18~10.20	-	4	대전, 충남
'10.10.25~10.27	-	17	인천, 충남, 전남

- 큰 피해로는 '05.10.21~10.24 기간 중 동해안지역에 강풍·풍랑으로 (최대순간 풍속 6~30m/s) 울산, 강원, 경남 지역에 11명의 인명피해와 어항 13개소, 군사 시설 2개소, 선박 14척 등 84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 강풍·풍랑 대비 기상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상 예비특보 단계부터 시설물 사전 보호조치 등 피해예방 대책 추진

2 호 우

【현 황】

- 최근 10년간 호우로 인한 피해는 총 80건 발생, 사망·실종 205명, 재산피해 38,240억원으로 나타남

【최근 10년('04~'13년)간 월별 호우피해 발생회수 및 인명피해 현황 - 재해연보】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 수	80	-	-	1	2	1	11	31	23	7	2	2	-
인명피해 (사망자, 명)	205	-	-	-	-	-	6	172	24	2	1	-	-
재산피해 (억원)	38,240	-	-	25	30	-	2,348	29,374	5,034	728	699	2	-

【분 석】

- 10월에는 2건(2.5%)이 발생, 1명의 인명피해와 699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10월 호우는 여름철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4일 이내)에 국지성으로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큰 피해로는 '06.10.22~10.25 기간 동안 지속된 강우로 6개 시·도(부산,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에서 1명이 사망하고 699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동해상의 따뜻하고 습한 저기압이 동해북부상의 차고 습한 공기와 합류되어 북동풍을 타고 태백산맥 동쪽사면을 부딪히며 동해안 지방에 많은 강수(강릉 317.5mm, 속초 258.5mm 등)를 기록함

【최근 10년간('04~'13) 10월 호우 피해 현황 - 재해연보】

기 간	인명피해 (사망, 명)	재산피해 (억원)	주요 피해지역	비 고
계	1	699		
'06.10.22~10.25	1	699	부산,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12.10.27~10.27	-	0.02	부산	

- ➡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상습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정비, 집중호우 대처요령 홍보 등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강화 필요

II 중점추진사항

강풍·풍랑에 대비한 해안가 출입통제, 수산·농림시설 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예방대책 지속 추진

- 기상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지자체·유관기관 비상근무태세 확립
- 배수펌프장 전기·기계시설 가동실태 상시 점검 및 작동체계 유지
- 미완공 수해복구장,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취약시설 지속 정비
- 낙석, 산사태 위험지역 경고판 설치상태 점검·정비 실시

● 강풍·풍랑 피해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 추진

- 풍랑특보 시 선박출항, 낚시객·어민 등 조업 및 외출자제
- 농림시설(비닐하우스, 인삼·버섯재배시설 등)과 수산증·양식시설 사전 결박 및 보강 조치
- 지자체는 놀이공원, 유원지 등의 놀이시설 운영중지 및 공사장 크레인 대피 조치 등
- 강풍·풍랑 대비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강화

● 너울성 파도 대비 해안지역 관리 강화

-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에 대한 낚시객 등 출입통제
- 해안가 인명피해 위험구역 정기 예찰활동 실시
- 위험지역·관광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안전시설 설치
- 위험지역에 대한 현장책임자 지정·운영 및 위험표지판 설치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대국민 홍보 전개

사회재난

I 사회재난 분석

가을철 단풍 절정기를 맞아 산행인구 증가로 인한 산악 사고와 농작물 수확기에 농기계 안전사고 증가

발생현황

- 최근 5년('08~'12년)간 총 1,440,582건 중 10월에 129,717건(9.0%) 발생
- 10월 발생건수(월평균)는 25,943건으로 전월(9월) 24,126건에 비해 1,817건 상승
- 교통사고·화재·산악·농기계사고 증가한 반면 수난사고, 붕괴, 해양사고는 감소함

【 최근 5년('08~'12)간 10월중 사회재난(사고) 발생현황 - 재난연감 】

구 분		계	교통	화재	해양	붕괴	수난 (물놀이)	산악	농기계	기타
5년 전체	총건수	1,436,431	1,120,057	225,936	7,697	1,310	13,116	16,938	4,501	46,876
	9월	120,630	96,765	14,620	812	165	1,135	1,817	505	4,811
5년 평균 (전월 비교)	9월	24,126	19,353	2,924	162	33	227	363	101	963
	10월	25,943	20,690	3,404	155	15	147	449	133	950
	증감	1,817↑	1,337↑	480↑	7↓	18↓	80↓	86↑	32↑	13↓

※ 기타 : 산불, 감전, 레저, 추락, 철도, 가스, 환경오염, 폭발, 광산 사고 등

< 10월 발생 주요 사건·사고 사례 >

- ◇ '13.10.19 경기 여주 강천면 마감산 등산중 심장마비(사망 1)
- ◇ '12.10.28 경기 의왕 왕곡동 백운산 등산중 노출혈(사망 1)
- ◇ '11.10.10 경남 통영시 한산면 의암방파제 앞 해상 어선 충돌사고(사망 2, 부상 1)
- ◇ '10.10.18 제주 제주시 차귀도 화물선에 의해 어선 전복·침몰사고(사망 3, 부상 5)
- ◇ '10.10.09 전북 군산시 콤바인 조작 미숙에 의한 농기계 전복사고(사망 1)
- ◇ '06.10.03 서해대교 상행선 트럭 등 29대 연쇄 교통사고(사망 11, 부상 57)
- ◇ '05.10.03 경북 상주시 시민운동장 공연장 압사사고(사망 11, 부상 162)
- ◇ '94.10.21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붕괴사고(사망 32, 부상 17)
- ◇ '93.10.10 전북 위도 앞바다 정기 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사망 292)

주요 재난별 분석

① 산악 사고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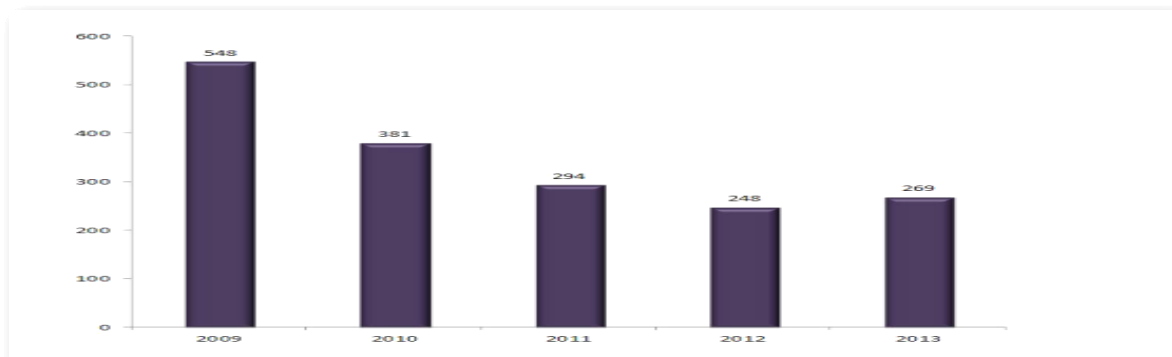
- 최근 5년('09~'13년)간 국립공원의 탐방객은 총 19,345만여 명으로 그 중 단풍철인 10월에는 전체의 15%인 2,906만여 명으로 나타남

【 최근 5년('09~'13년)간 국립공원 월별 탐방객 현황-국립공원관리공단 】

월(만명)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19,345	902	844	1,076	1,648	2,232	1,634	1,575	2,162	1,303	2,906	2,204	859
2009	3,551	181	174	219	360	437	281	280	437	211	475	349	147
2010	3,980	181	169	197	344	482	326	351	460	246	589	488	147
2011	3,790	160	162	202	317	417	309	307	421	271	617	433	174
2012	3,725	199	177	203	295	438	333	318	370	245	578	409	160
2013	4,299	181	162	255	332	458	385	319	474	330	647	525	231

【분 석】

- 최근 5년('09~'13년)간 국립공원에서는 탐방객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740명(사망 110명, 부상 1,630명)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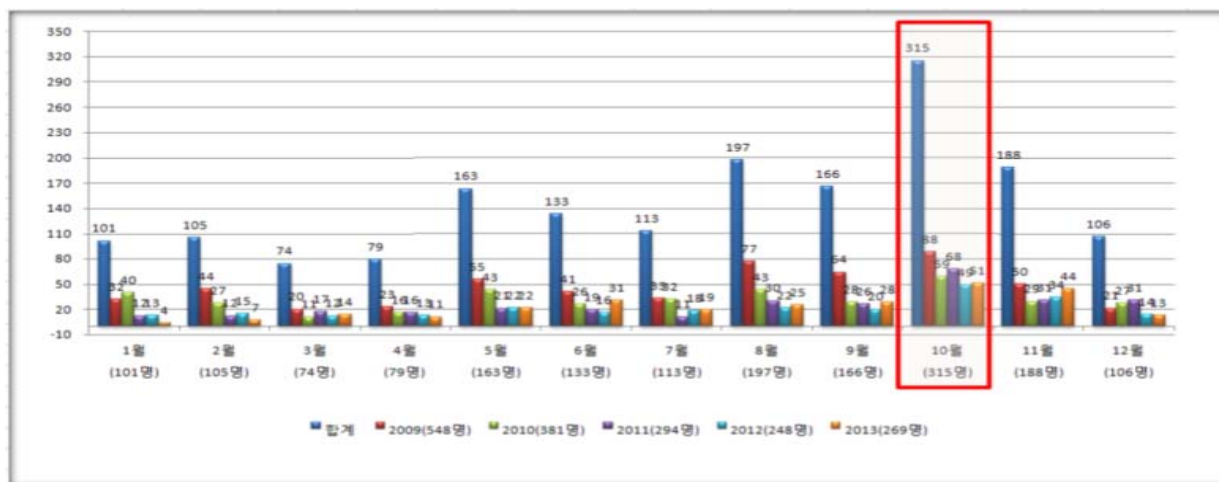


【 최근 5년('09~'13년)간 국립공원 안전사고 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 】

연 도	총 계	사 망							부상 등		
		소계	추락사	동사	익사	심장 돌연사	자연 재해	기타	소계	골절/상처	탈진/경련
총계	1,740	110	39	1	12	51	6	1	1,630	1,159	471
2009	548	22	10	-	1	10	1	-	526	360	166
2010	381	31	9	-	4	13	5	-	350	230	120
2011	294	20	10	1	2	7	-	-	274	204	70
2012	248	16	6	-	1	9	-	-	232	183	49
2013	269	21	4	-	4	12	-	1	248	182	66

*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라산 국립공원 미포함

- 사상자의 주요원인은 사망자 중 81.8%가 심장돌연사·추락사(90명), 부상자 중 71.1%가 골절·상처(1,159명)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자신의 체격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산행과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
- 월별로는 10월이 단풍철로 행락객과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연간 가장 많은 18.1%인 315명(사망 11, 부상 304)의 인명피해 발생



【 최근 5년('09~'13년)간 국립공원 안전사고 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 】

월(명)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740	101	103	75	80	163	133	113	197	166	315	188	106
사망	110	5	5	9	8	12	13	10	20	10	11	5	2
부상	1,630	96	98	66	72	151	120	103	177	156	304	183	104

➡ 안전사고 다발지역 등산로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대국민 안전산행 요령 홍보 강화

② 농기계 안전사고

【현 황】

- 최근 4년('09~'12년)간 농기계 안전사고로 4,065건, 인명피해 총 4,012명 (사망 354, 부상 3,658)으로 나타남

【 최근 4년('09~'12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현황 - 재난연감 】

연 도	건 수	인 명 피 해			비고
		계	사 망	부 상	
계	4,065	4,012	354	3,658	
2009	427	443	64	379	
2010	644	601	60	541	
2011	918	925	90	835	
2012	2,076	2,043	140	1,903	

【분 석】

-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추이를 분석해 보면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는 봄철과 농작물 수확기인 가을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4년('09~'12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월별 현황 - 재난연감 】

연 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계	4,065	79	129	306	429	514	427	317	371	465	603	305	120
2009	427	12	13	42	56	51	40	37	46	45	49	27	9
2010	644	14	23	45	43	65	80	37	58	77	113	63	26
2011	918	14	26	72	93	116	93	80	94	105	139	62	24
2012	2,076	39	67	147	237	282	214	163	173	238	302	153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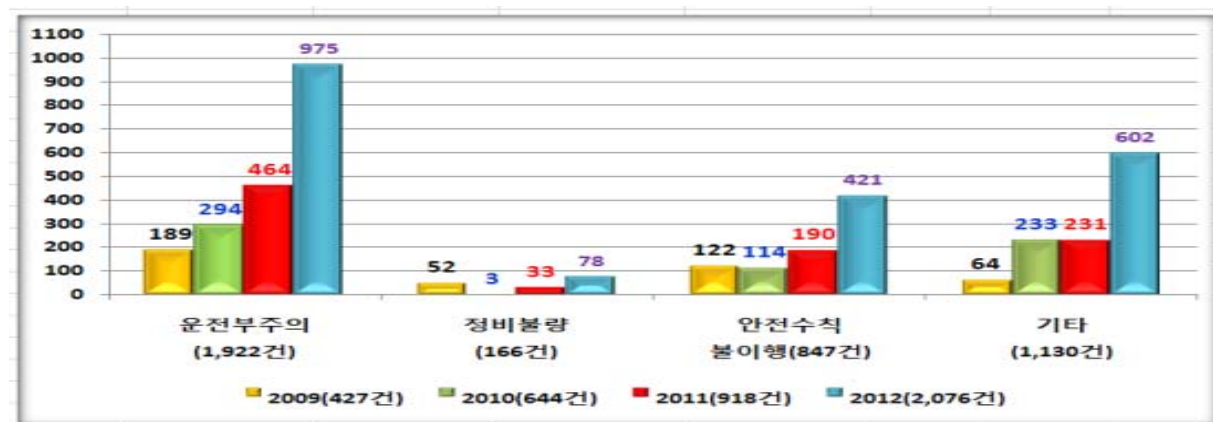
- 10월에는 603건(14.8%)으로 가장 많고, 파종기인 5월 514건(12.6%), 9월 465건(11.4%) 순으로 나타남

【 최근 4년('09~'12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월별 현황 - 재난연감 】



- 4년간 총 4,065건 중 발생원인별로는 운전부주의 47.3%(1,922건), 안전수칙 불이행 20.8%(847건), 농기계 정비 불량 4.1%(166건) 등 순으로 나타남

【 최근 4년('09~'12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원인 현황 - 재난연감 】



- 장소별로는 36.4%인 1,480건이 도로, 주거용건물 5.0%(203건) 등으로 나타나 농기계 도로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최근 4년('09~'12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장소별 현황 - 재난연감 】

연 도	합 계	주거용 건물	다중 이용	공사장	초고층 및 복합	도로	유원지	하천 호수	바다	산	교량	철로	공장	기타
계	4,065	203	15	57	3	1,480	3	28	7	133	5	1	43	2,087
2009	427	16	-	-	-	203	-	2	-	11	-	-	4	191
2010	644	13	-	1	-	248	-	3	2	30	-	-	1	346
2011	918	48	11	31	1	261	-	14	-	37	2	1	26	486
2012	2,076	126	4	25	2	768	3	9	5	55	3	-	12	1,064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서 2012년에 실시한 농기계별 농작업사고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 300개 마을과 24개 경찰서 표본조사(2012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농업기계 농작업사고 발생건수(300개 표본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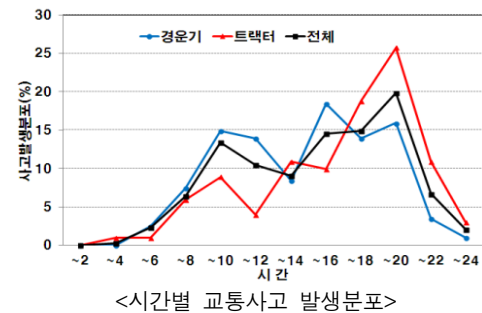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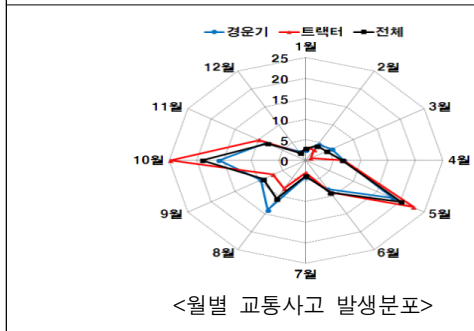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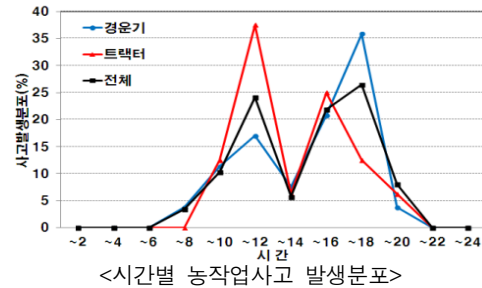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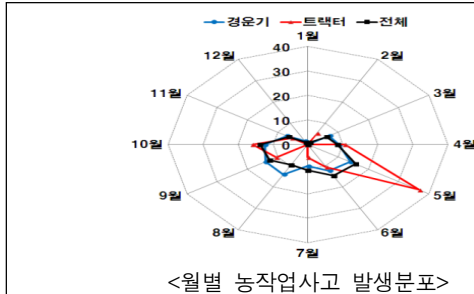
구 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예취기	관리기	기타*	계
건 수	57	19	1	6	5	2	5	95
(%)	(60.0)	(20.0)	(1.1)	(6.3)	(5.3)	(2.1)	(5.5)	(100)

* : SS기, 곡물건조기, TMR 급이기, 마늘수확기, 엔진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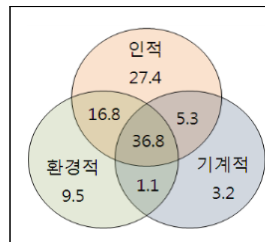
- 100대당 농작업사고는 경운기가(0.69건), 교통사고는 트랙터가 (0.19건) 나타남

※ 최근의 농작업사고 발생 빈도(건/100대)
 · 경운기 : 0.82 ('08) → 0.79 ('10) → 0.69('12)
 · 트랙터 : 0.31 ('08) → 0.38 ('10) → 0.54('12)

※ 최근의 교통사고 발생 빈도(건/100대)
 · 경운기 : 0.16 ('08) → 0.18 ('10) → 0.15('12)
 · 트랙터 : 0.18 ('08) → 0.19 ('10) → 0.1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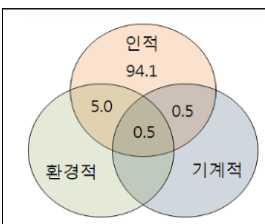


▶ 농작업사고 원인



- 인적 원인 : 운전자 부주의 87.8%, 운전미숙 4.9%, 기타 7.3
- 기계적 원인 : 농기계 고장 60.0%, 기타 40
- 환경적 원인 : 급경사 32.7%, 좁은 도로 30.6%, 급커브 4.1, 기타 32.6

▶ 농업기계 교통사고 원인



- 농업기계 교통사고는 모두 인적요인과 관련됨
- 인적 94.1%, 인적+환경적 5.0, 인적+기계적 0.5, 인적+환경적+기계적 0.5
- 인적원인의 세부내용 : 전방주시태만 79.0%, 심리적 요인에 의한 판단 잘못 6.4, 심신건강상태불량 5.9 등

➡ 농기계 안전점검·정비,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가 필요하며, 야간 통행시 등화장치 부착상태 및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필요

Ⅲ 중점추진사항

단풍철 등을 맞아 산악인구 증가와 축제 참여 등을 위한 늘어나는
행락객과 농작물 수확기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필요

● 입산객 증가에 따른 산악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 119신고 앱(APP)<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다운 안내 등 홍보강화

* 소방방재청 119신고 앱으로 산악사고 구조요청 →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표출로 신속한 구조가능

- 낙석 제거 등 등산로 위험요인 제거 및 안내 표지판 정비
- 전국 유명산, 국립공원 입구 등에서 ‘안전 산행요령’ 홍보
- 무리한 암벽·암릉 등반 자재 및 기상특보 시 입산 통제 등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철저

- 농기계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노후 농기계 정비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수칙 홍보 및 등화장치 부착상태 단속

● 대형버스 등 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 강화

- 급경사지 등 사고다발지역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정비
- 버스내에서의 가무행위,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등 집중단속
-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차량 정기점검 및 안전운전 홍보
- 행락철 유도선, 유원시설업체의 놀이기구 점검·정비 및 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관리 강화

소방활동

I 화재 분석

가을철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등 대형화재에 대한 예방대책과 벌어지는 일교차로 인한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 필요

【현황】

● 최근 5년('09~'13)간 전국의 화재는 총 217,232건이 발생하여 8,418명(사망 1,243, 부상 7,175)의 인명피해 발생

- 10월 평균 화재는 3,246건, 인명피해는 133명 발생

※ 연도별 화재건수(10월) : '09년 47,318건(3,651건), '10년 41,863건(3,272건), '11년 43,875건(3,074건), '12년 43,248건(3,201건), '13년 40,932건(3,033건)

【 최근 5년('09~'13)간 월평균 화재 발생 현황(국가화재정보시스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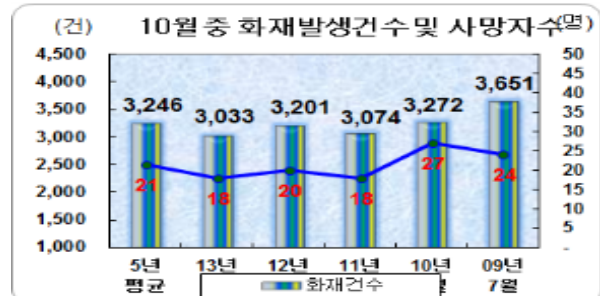


【분석】

● 최근 5년간('09~'13) 10월 중 화재는 평균 3,246건(총 16,231건)이 발생하여 21명(총 107명)이 사망하고, 219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1일 화재는 105건, 사망은 0.6명, 재산피해는 7억원의 피해가 발생

구 분	화재건수 (평균)	인명피해 (사망)	재산피해 (억원)
5년 평균	3,246	21	219
13년 10월	3,033	18	239
12년 10월	3,201	20	214
11년 10월	3,074	18	175
10년 10월	3,272	27	252
09년 10월	3,651	24	214



- 발생장소는 주택 904건(27.8%), 야외소각 676건(20.8%), 자동차 444건(13.7%), 음식점·서비스 342건(10.5%)등 순으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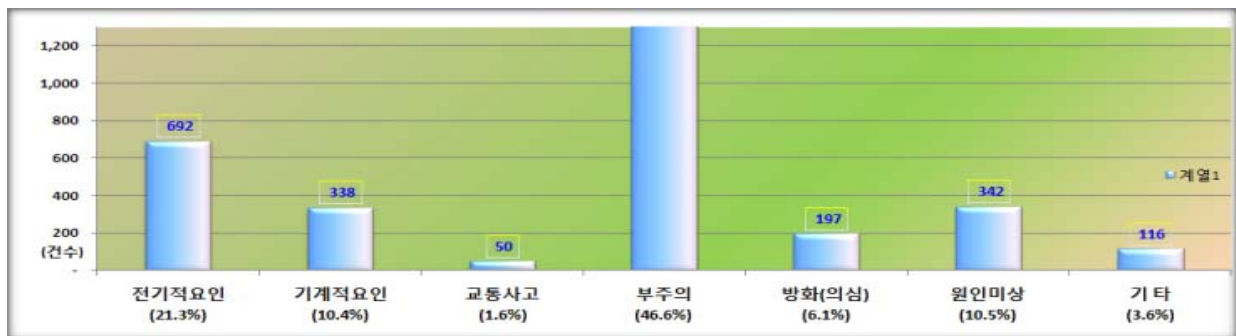
【 최근 5년('09~'13)간 10월 화재 발생 장소(국가화재정보시스템) 】

구 분	계	주택 (공동)	사무 판매	공장 창고	음식점 서비스	자동차	야외 (소각등)	동식물 시설	기타 건축물	기타
건 수 (평균)	3,246	904	163	280	342	444	676	98	161	178
비율(%)	100.0	27.8	5.0	8.6	10.5	13.7	20.8	3.0	5.0	5.5

- 발생원인은 부주의 1,511건(46.6%), 전기적요인 692건(21.3%), 기계적
요인 338건(10.4%) 등 임

- 이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1,511건)는 담배꽂초 501건(33.1%), 음식물조리 299건(19.8%), 쓰레기소각 166건(11%)등 순임

【 최근 5년('09~'13)간 10월 화재 발생 원인(국가화재정보시스템) 】



- 최초 착화물은 종이·목재 725건(22.3%), 전기·전자가 550건(16.9%)
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쓰레기류 382건(11.8%), 합성수지 319건
(9.8%) 순으로 나타남

【 최근 5년('09~'13)간 10월 화재 최초 착화물(국가화재정보시스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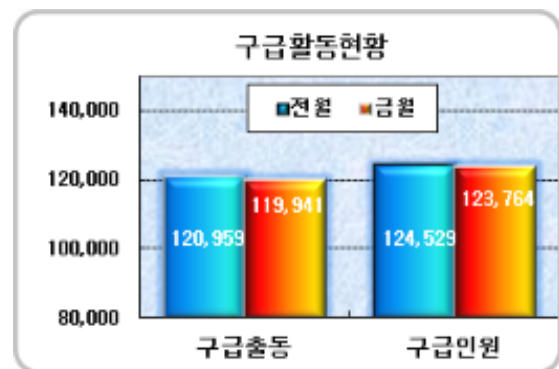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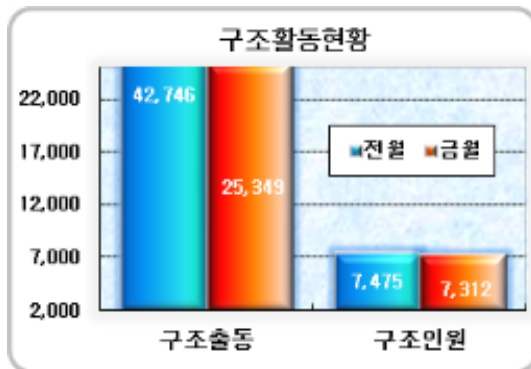


II 구조·구급 통계 분석

가을철 산악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안전수칙 준수 철저, 행락객 차량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

- 5년 평균, 구조 : 25,349건/7,475명, 구급 : 119,941건/123,764명 이송
- 최근 5년간('09~'13) 10월 중 구조·구급 통계 분석 결과
 - 구조 출동건수(25,349건)는 전월(42,746건)에 비해 40.7%(17,397건) 감소
 - 구급활동(119,941건)은 전월(120,959건)보다 0.8%(1,018건) 감소, 병원 이송한 환자는 123,764명(전월보다 6.4%, 765명) 증가

※ 5년 평균('09~'13) 연간 구조건수/인원 : 34만건/10만명, 출동건수/이송인원 : 208만건/149만명



- 최근 5년간 10월의 인명구조 활동은 화재, 교통, 산악사고 순 발생

구분	계	화재	교통	수난	폭발	기계	산악	자연재해	기타
건	25,349	2,525	2,135	257	12	232	1,070	164	18,954
비율(%)	100	10.0	8.4	1.0	0	0.9	4.2	0.6	74.8

- 10월의 구급활동은 질병이 52.5%로 가장 높고, 교통사고가 20.9%를 차지

구분	계	질병	의도성	교통사고	사고부상	기타
인원(명)	128,338	64,925	15,038	25,870	7,620	10,311
비율(%)	100.0	52.5	12.2	20.9	6.2	8.3

3

최근 발생한 주요재난사고

1

경북 경주 북군저수지 제당 누수사고

■ 사고개요

- 일시/장소 : 2014. 9. 6.(토) 22:12경 / 경북 경주시 북군동 북군저수지
* 1971년 준공 / 제방길이 147m, 높이 10.1m / 저수량 11만톤(저수율 80%, 10만톤)
- 사고내용 : 수문지점 복통(폐통부분)에서 누수발생(추정)
- 피해상황 : 저수지 하류지역 주민 및 펜션투숙객 100여명 대피 * 인명피해없음

■ 주요조치사항

- (소방방재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수방자재 및 인원 동원 출동
- (경주시) 주민대피 방송 및 수방자재와 중장비 동원 복구 추진(02시40분 주민 복귀)
- (농어촌공사) 긴급안전점검 실시 및 양수기 동원 펌핑 작업 실시

■ 현장위치 및 사진



2 경기 부천 오피스텔 화재사고

■ 사고개요

- 일 시 : 2014. 9. 18(목) 10:40 ~ 13:06(완진)
- 장 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4 『굿모닝위너스텔(오피스텔)』
- 구 조 : 양식 철콘조 슬라브가 15/5, 1동 연면적 14,018㎡
※ 지하 1~5층(주차장) / 1~2층(상가) / 3~15층(오피스텔 - 260세대)
- 원 인 : 전기적요인 추정(통신단자함 최초 발화)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조사 중(단순연기흡입 51명 병원 이송)
- 인명구조 : 20명(옥상 대피 인원 및 오피스텔 거주자)

■ 주요조치사항

- 현장도착 즉시 인명구조 및 연소 확대방지 소방력 투입 화재 진압
- 안행부·BH 등 유관기관 상황전파 / 부천소방서장 현장 지휘
- 소방방재청 소방상황실 무전청취 상황관리
- 경기소방헬기 출동 인명구조 및 서울, 인천 소방헬기 지원요청(12:18)
- 오피스텔 거주자 15명 구조 완료 및 단순연기 흡입자 51명 병원 이송
- 동원현황 : 인원 72명, 장비 29대

■ 현장 사진



4

과거 주요 재난사례 분석

《사례 1》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 사고 개요

- 사고일시 : 1994. 10. 21(07시 40분경)
- 인명피해 : 사망 32명, 부상 17명
- 사고내용 : 성수대교 북단 10번째~11번째 교각사이 48m 현수트러스 붕괴

〈 교량 개요 〉

- ◇ 착공(1977년 4월) / 준공(1979년 10월 15일) / 116억원
- ◇ 폭 19.4m, 길이 1,160m / 4차선 교량 / 설계하중 32.4t(DB-18)

■ 피해 현장 사진



■ 붕괴 원인

- 유효단면적의 감소와 응력집중을 유발하게 한 용접시공의 결함과 제작오차 검사 미흡, 피로균열의 진전을 예방하지 못한 점검 및 유지관리 미비, 피로균열을 가속화시킨 규정이상 중차량 통행규제 소홀

* 1993년 서울 동부간선도로 개통으로 교통량 증가 및 과적차량 통과

■ 사고 이후

- '95년 4월 5일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 및 '95년 6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지침서를 발간
- 현대건설이 공사비 780억원을 들여 '97년 7월 3일 차량통행이 재개되었다. 이후, 교통량이 늘자 '98년 12월부터 8차선으로 확장 공사 ~ '04년 9월 17일 재개통. 확장된 성수대교는 트러스가 붕괴되어도 한강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낙교 방지턱이 설치되었고 교량 등급도 2등교에서 1등교로 상향조정되었다

《사례 2》 2005년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사고

■ 사고개요

- 발생일시 : 2005. 10. 3. 17:40
- 장 소 : 경북 상주시 계산동 상주시민운동장
- 인명피해 : 70명(사망 11명, 부상 162명)
- 사고내용 : 제3회 상주 자전거축제 마지막날 행사로 유명 연예인이 대거 출연하는 가요콘서트를 보기 위해 5,000여명이 일시에 운동장 출입문 중 하나인 직3문을 통해 운동장으로 뛰어가다가 압사사고 발생

■ 피해 현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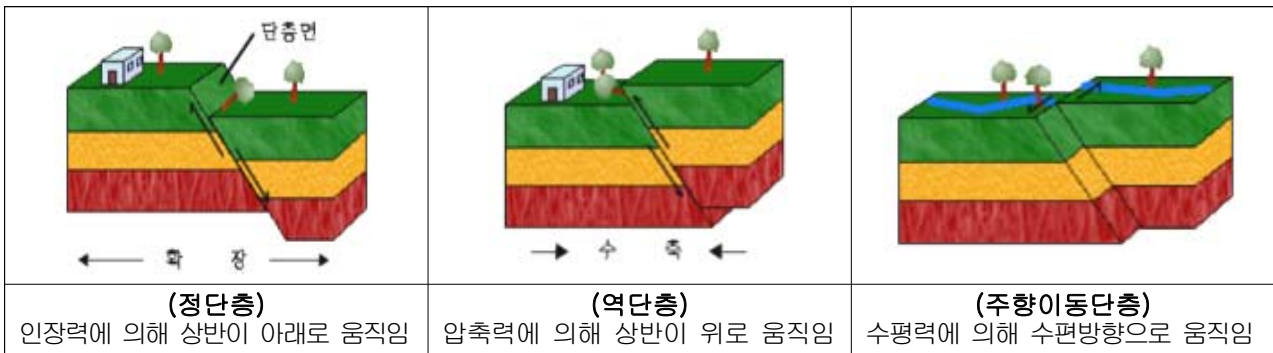
■ 사고 이후

-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대학교수, 문화예술 전문가 등 매뉴얼 개발, '06년 6월 20일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 개발·보급 사용하다가
- '09년 2월 창녕 화왕산 역사태우기 지역축제 행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 '09년 4월 총리실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수립 지시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사항을 추가·보완,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간 하여 공연·행사·지역축제 주최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재해대책(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등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

1 정 의

- 단층 작용이나 화산 활동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가 파동 형태로 사방으로 전달되어 땅이 흔들리는 현상

* 지진은 거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이다. 불과 수십 초~수분 동안 땅이 심하게 진동하면서 많은 건물을 파괴시키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온다. 태풍이나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지진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피해 범위도 넓어 효과적으로 대비하기도 어렵다.



2 발생원인 및 특성

- (단층 지진) 암층이 힘을 받으면 변형이 진행되다가 탄성 한계에 도달하면 암석이 순간적으로 파괴되면서 단층이 형성되고, 이때 방출된 탄성 에너지가 파동 에너지로 전환되어 사방으로 전파되면서 지진이 발생된다. 세계 지진의 95% 이상은 단층 지진으로 발생한다.
- (화산 지진) 판의 경계 지역이나 열점에는 대규모의 마그마가 존재한다. 이 마그마의 활동이나 화산 폭발에 의하여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화산과 관련된 지진을 화산 지진이라 한다.

알아두고 가기

- 진원의 깊이에 따라 천발지진(70km 이하인 지진), 중발지진(70~300km인 지진), 심발지진(300km 이상인 지진)
- 진앙 거리에 따라 근거리 지진(600km보다 가까운 지진), 원거리 지진(600km보다 먼 지진)
- 사람의 몸으로 느끼는 정도에 따라 무감지진(사람의 진동을 몸으로 느낄 수 없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지진), 유감지진(사람이 진동을 몸으로 느끼는 지진)

③ 지진의 크기

- **규모(Magnitude, M)** : 발생하는 지진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지진계에 기록된 진폭을 진원¹⁾의 깊이와 진앙²⁾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장소에 관계없는 절대적 개념의 지진 크기이며, 통상 리히터 규모를 사용함
- **진도(Seismic Intensity, I)** : 지진동의 세기를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의 물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상대적 개념의 지진 크기임

【지진규모 및 진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

규모	진도	현상 설명	
1.0~2.9	I	I	지진계만 감지, 특별히 좋은 상태에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느낌
3.0~3.9	II~III	II	건물의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느낌
		III	실내에서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뚜렷하게 느낌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며 트럭이 지나가는 듯 한 진동
4.0~4.9	IV~V	IV	실내에서는 많은 사람이 느끼나 야외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함 밤에는 일부 사람이 잠을 깼 그릇·창문·문 등이 흔들리며 벽이 갈라지는 듯 한 소리를 냄 대형 트럭이 건물에 부딪치는 듯한 느낌을 주며, 정지한 차가 뚜렷하게 흔들림
		V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며,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깼 그릇과 창문이 깨어지기도 하며, 고정 안 된 물체는 넘어지기도 함
5.0~5.9	VI~VII	VI	모든 사람이 느끼며, 많은 사람이 놀라 대피함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기도 하며, 건물 벽에 균열이 생기기도 함
		VII	모든 사람이 놀라 뛰쳐나옴 설계와 건축이 잘된 건축물에서는 피해를 무시할 수 있으나, 보통 건축물은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고 부실건축물은 상당한 피해 발생 굴뚝이 무너지기도 하며, 운전차도 지진동을 느낄 수 있음
6.0~6.9	VIII~IX	VIII	특수 설계된 건축물에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고, 일반 건축물에도 부분적인 붕괴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부실 건축물은 극심한 피해 발생 창틀로부터 창벽, 굴뚝, 기둥, 기념비, 벽돌이 무너짐
		IX	특수 설계된 건축물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견고한 건축물은 부분적 붕괴 발생 지표면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하 송수관이 파손
7.0 이상	X~XII	X	대부분의 건축물이 기초와 함께 부서짐 지표면에 심한 균열이 생기고, 철도가 휘고 산사태가 발생함
		XI	남아있는 건축물이 거의 없으며 지표면에 광범위한 균열이 생김 지표면이 침하하고 철로가 심하게 휜
		XII	전면적인 파괴 상황 지표면에 파동이 보이고, 수평면이 뒤틀리며 물건이 하늘로 던져짐

1) 진원 : 지진이 발생할 때 지반의 파괴가 시작되는 곳으로 지진파가 발생한 지점을 의미함

2) 진앙 : 진원으로부터 연직 방향에 있는 지표상의 지점으로 진앙지는 인근지명을 사용하여 붙여짐

4 지진발생 현황

- (세계의 지진발생) 2000년부터 현재까지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약 11,605회 발생하고,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규모 7.0 이상의 지진의 경우 연평균 약 14회가 발생하여 지진으로 연평균 51,480명 사망

【인명피해 상위 10대 지진 순위 - 한국방재학회】

순 위	발생일자	지역, 국가	사망자(명)	규모(M)
1	2010.01.12	아이티	316,000	7.0
2	1976.07.28	중국 하북성 당산	242,769	7.5
3	1920.12.16	중국 간쑤성	235,502	7.8
4	2004.12.26	인도 수마트라(쓰나미)	230,210	9.1
5	1923.09.01	일본 간토	142,800	7.9
6	1908.12.28	이탈리아 시칠리아, 메시나	123,000	7.1
7	1948.10.06	(구)소련/투르크메니스탄	110,000	7.3
8	2008.05.12	중국 스촨성	87,475	7.9
9	2005.10.08	파키스탄 무자파라바드	73,338	7.6
10	1970.05.30	페루 침보테	70,000	7.9

- 최근 10년('04~'13년)간 한반도 지진발생 현황

【최근 10년('04~'13년)간 연도별 지진발생 현황 - 소방방재청】

합 계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520	93	56	52	42	60	46	42	50	37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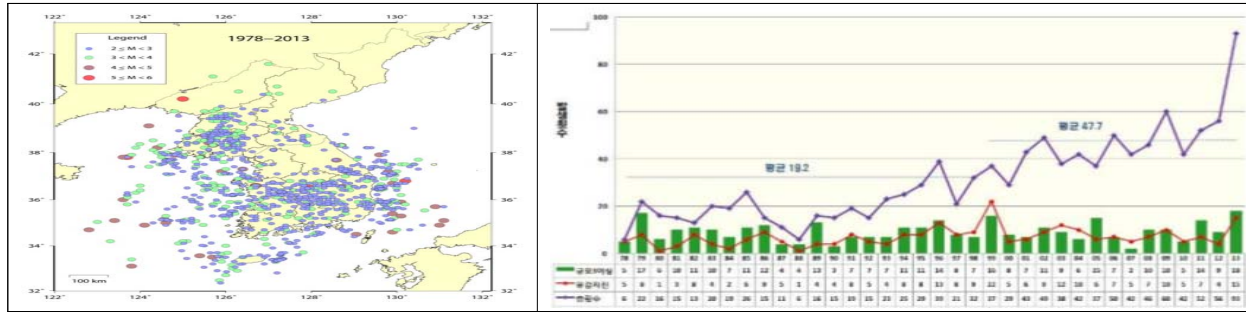
【최근 10년('04~'13년)간 지역별 지진발생 현황 - 소방방재청】

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세종	경북	경남	제주	북한
520	-	4	4	45	1	4	16	7	34	13	53	38	45	-	104	26	50	76

- 최근 10년('04~'13)간 연도별 최대지진 발생현황

연도	발생횟수	최대 규모	비고
2004	42	5.2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04.5.29)
2005	37	4.0	경남 거제시 동남동쪽 약 54km 해역('05.6.29)
2006	50	3.5	경북 울진군 동쪽 58km 해역('06.4.29)
2007	42	4.8	강원 평창군 도암면-진부면 경계지역('07.1.20)
2008	46	4.2	제주 제주시 서쪽 78km 해역('08.5.31)
2009	60	4.0	경북 안동시 서남서쪽 2km 지역('09.5.2)
2010	42	3.2	울산 동구 동북동쪽 64km 해역('10.2.16)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남동쪽 28km 해역('10.3.9) 제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45km 해역('10.8.28)
2011	52	4.0	인천 백령도 동남동쪽 13km 해역('11.6.17)
2012	56	3.9	전북 무주군 동북동쪽 5km 지역('12.5.11)
2013	93	4.9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약 50km 해역 인천 백령도 남쪽 31km 해역

● 최근 지진 발생기록 및 발생추이(1978~2013년)



● M4.0이상 지진 발생현황(1978~현재)

순위	규모(M)	발생일자	발생지역	비고
1	5.3	1980. 1. 8.	평북 서부 의주-삭주-귀성 지역	내륙
2	5.2	2004. 5.29.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	해역
3	5.2	1978. 9.16.	충북 속리산 부근 지역	내륙
4	5.1	2014.04. 1.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열도 서북서쪽 100km해역	해역
5	5.0	2003. 3.30.	인천 백령도 서남서쪽 약 80km 해역	해역
6	5.0	1978.10. 7.	충남 홍성읍 지역	내륙
7	4.9	2013. 5.18	인천 백령도 남쪽 31km 해역	해역
8	4.9	2013. 4.21.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101km 해역	해역
9	4.9	2003. 3.23.	전남 홍도 북서쪽 약 50km 해역	해역
10	4.9	1994. 7.26.	전남 홍도 서북서쪽 약 100km 해역	"
11	4.8	2007. 1.20.	강원 평창군 도암면-진부면 경계 지역	내륙
12	4.8	1981. 4.15.	경북 포항 동쪽 약 65km 해역	해역
13	4.7	1982. 3. 1.	경북 울진 북동쪽 약 45km 해역	"
14	4.6	1994.04.22.	울산 남동쪽 약 175km 해역	"
15	4.6	1978.11.23.	황해남도 재령지역	내륙
16	4.5	1996.12.13.	강원 영월 동쪽 약 20Km 지역	"
17	4.5	1994.04.23.	울산 남동쪽 약 175km 해역	해역
18	4.5	1993.03.28.	제주도 서쪽 약 230km 해역	"
19	4.4	1992.11.04.	전남 서쪽 약 320km 해역	"
20	4.5	1982.02.14.	황해북도 사리원 남서부 지역	내륙
21	4.5	1978.08.30.	평안남도 서부 해역	해역
22	4.2	2008.05.31.	제주도 제주시 서쪽 78km 해역	해역
23	4.2	1999.01.11.	강원 속초시 북동쪽 약 15km 해역	"
24	4.2	1997.06.26.	경북 경주 남동쪽 9km 지역	내륙
25	4.2	1996.01.24.	강원 양양 동쪽 약 80km 해역	해역
26	4.2	1995.07.24.	인천 서해 백령도 북서쪽 약 30km 해역	"
27	4.2	1985.01.14.	부산 남동쪽 약 90km 해역	"
28	4.2	1983.09.17.	황북 열악산 북서 지역	내륙
29	4.1	2001.11.24.	경북 울진 동남동쪽 약 50km 해역	해역
30	4.1	1998.02.10.	인천 서해 백령도 서남서쪽 90km 해역	"
31	4.1	1994.04.23.	울산시 동쪽 약 150km 해역	"
32	4.0	2013.09.11.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남동쪽 60km 해역	"
33	4.0	2011.06.17.	인천 백령도 동남동쪽 13km 해역	"
34	4.0	2009.05.02.	경북 안동시 서남서쪽 2km 지역	내륙
35	4.0	2005.06.29.	경남 거제 동남동쪽 약 54km 해역	해역
36	4.0	2003.06.09.	전북 군산 서쪽 약 280km 해역	"
37	4.0	2002.08.10.	전남 흑산도 서북서쪽 약 195km 해역	"
38	4.0	1992.12.13.	울산 동남동쪽 약 70km 해역	"
39	4.0	1992.01.21.	울산 남동쪽 약 50km 해역	"
40	4.0	1987.03.06.	함경남도 대동강 하구 남포 부근 지역	내륙
41	4.0	1985.06.25.	인천 서해중부 영흥도 부근 해역	해역
42	4.0	1982.08.29.	인천 서해중부 덕적군도 서쪽 해역	"
43	4.0	1979.02.08.	충남 홍성읍	내륙

⑤ 우리나라 지진 피해 사례

● 오대산 지진

- 일 시 : 2007. 1. 20(토) 20:56
- 진앙/규모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 진부면 경계지역 / 4.8
 -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사람이 감지한 유감지진
- 피해현황 : 일부 노후 조적조 건물 벽체에 균열 발생



〈학교건물 벽면 손상〉



〈우사 건물 손상〉

● 홍성 지진

- 일 시 : 1978. 10. 7(토) 18:19
- 진앙/규모 : 충남 홍성군 / 5.0
- 피해현황 : 인명피해 2명(부상)
- 재산피해 : 건물1,100여동(파손 100, 균열 1,000), 홍주성곽 붕괴, 도로 균열 및 유리창 500여장 파손, 일시정전 및 전화불통 등



〈조적조 건물 벽면과 기둥 파손〉



〈농가 주택 붕괴〉

⑥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1. 집안에 있을 경우		
		
☞ 테이블 밑으로 몸을 보호 !	☞ 사용 중인 불을 끄자	☞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 !
2. 집밖에 있을 경우	3. 상가에 있을 경우	4.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 낙하물 주의 !	☞ 침착하게 행동	☞ 가장 가까운 층에서 내려 대피
5. 전철을 타고 있는 경우	6.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	7.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 고정물을 꼭 잡자	☞ 도로 우측에 정차	☞ 산사태 등 위험지역 신속 대피
8. 부상자가 있는 경우	9. 피난은 마지막 수단	10.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
		
☞ 서로 협력해서 응급구호를 !	☞ 대피는 도보로 집은 최소로 !	☞ 유언비어를 믿지 말자

6 재난관리 정보마당

강풍 대비 행동요령

평상시

- 노후 간판을 정비하고, 지붕, 옥상 등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을 치운다.
- 만일에 대비하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경로를 실제 도보로 확인해 둔다.
- 손전등, 라디오, 가정상비약 등 대피준비물을 준비해 둔다.

강풍 주의보·경보가 예보된 경우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강풍정보를 수시로 확인한다.
-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한다.
- 가옥 내·외의 전기수리를 하지 않는다.
- 입간판, 창가의 화분 등을 제거한다.
- 지붕위 등 지상보다 높은 곳에서는 가능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 외부에 있을 때는 신속히 건물안으로 대피하고,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않는다.
- 출입문을 굳게 닫고,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커튼, 블라인드 등을 치고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 골방 등으로 피한다.
-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방음벽 아래로 대피하지 않는다.
- 놀이공원, 유원지 등의 놀이시설, 공사장의 크레인, 리프트 등은 즉시 운영을 중지하고 대피한다.
- 전주, 송전철탑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낡은 집이나, 위험담장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 공사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점검하고 임시시설, 낙하의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등 농림시설에 대하여는 결박 및 보강조치를 취한다.

풍랑 대비 행동요령

평상시

- 과거의 재해기록을 파악하고, 풍랑 발생시 어떠한 상황이 예상되는지에 대하여 파악해 둔다.
- 만일에 대비하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경로를 실제 도보로 확인해 둔다.
- 손전등, 라디오, 가정상비약 등 대피준비물을 준비해 둔다.

풍랑주의보가 예보된 경우

1. 해안가에서

- TV, 라디오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의 재난 예·경보를 청취한다.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며 특히 해안가에 접근하지 않는다.
- 해안가의 낚시객,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하거나 접근을 하지 않는다.
-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 가지 않는다.

2. 해상에서

- 항해 중 또는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관계기관(어업무선국 등)에 연락하고 대피를 준비한다.
- 어망의 부설을 중지하고 철거조치를 취한다.
- 항내 정박선박은 충돌, 침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3. 수산시설

- 수산 증·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4. 항만시설

-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예방활동을 시행한다.
- 크레인 전도방지용 장비 등 안전장치를 점검한다.
- 항만공사장의 공사용 장비, 인원은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풍랑정보가 예보된 경우

1. 해안가에서

- TV, 라디오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의 재난 예·경보를 청취한다.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며 특히 해안가에 접근하지 않는다.
- 해안가의 낚시객,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하거나 접근을 하지 않는다.
-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 가지 않는다.
- 해안가 주택, 영업점에서는 발화성, 유독성의 위험한 가재도구를 이동시키고,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해안도로는 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통행을 자제한다.
- 피난 권유나 방송이 없을 시에도 위험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대피한다.

2. 해상에서

- 항해 중 또는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관계기관(어업무선국 등)에 연락하고 대피를 준비한다.
- 어망의 부설을 중지하고 철거조치를 취한다.
- 항내 정박선박은 충돌, 침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소형어선은 안전한 육지로 인양하고 결박조치를 취한다.

3. 수산시설

- 수산 증·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인양 가능한 시설물은 신속히 인양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취·배수시설, 비닐하우스, 비상발전기 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수산생물의 먹이량을 조절하고 사육밀도를 낮춘다.
- 양식어류 도피방지를 위한 보호망을 보강 설치한다.

4. 항만시설

-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예방활동을 시행한다.
- 크레인 전도방지용 장비 등 안전장치를 점검한다.
- 임항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을 고박 및 보강한다.
- 컨테이너, 원목, 기타 적재화물 등은 풍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동 또는 결박한다.
- 항만공사장의 공사용 장비, 인원은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 항만 공사중인 현장은 피복석, 테트라포트 등 보강자재를 활용하여 보강조치를 취한다.

산악사고 예방요령

산에 오를 때

-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지기 한 두 시간 전에 마친다.
- 하루 8시간을 산행하고, 체력의 30%는 비축한다.
- 일행 중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한다.
- 될 수 있으면 30킬로그램 이상의 짐을 지지 않는다.
- 배낭에는 기상이변 등을 대비 랜턴, 우의, 휴대전화(예비 축전지), 상비약품을 준비하고 손에는 될 수 있으면 물건을 들지 않는다.
- 등산화는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성이 좋은 것을 신는다.
- 산행 중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섭취한다.
- 산에서는 아는 길도 자주 지도를 보고 확인한다.
-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는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확인한다.
- 등반로 외의 산행을 삼가고, 길을 잃었을 때에는 계곡을 피하여 능선으로 올라간다.
- 등산화 바닥 전체로 지면을 밟고 안전하게 걷는다.
-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항상 일정한 속도로 걷는다.
- 발 디딜 곳을 잘 살펴 천천히 걷는다.
- 처음 몇 차례는 15~20분 정도 걷고 5분간 휴식하고, 차츰 30분 정도 걷고 5~10분간 휴식한 다음 산행에 적응이 되면 1시간 정도 걷고 10분간씩 휴식하는 것이 좋다.
- 산행 시에는 수시로 지형과 지도를 대조하여 현재 위치를 소방서에서 설치한 위치판 고유번호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내려갈 때는 자세를 낮추고 발아래를 잘 살펴 안전하게 디딘다.
- 썩은 나뭇가지 풀, 불안정한 바위를 손잡이로 사용하지 않는다.
- 급경사 등 위험한 곳에서는 보조 자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산악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 위급 상황 시 행동 요령(3C)

- 1단계 : 위급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Check)
- 2단계 : 도움을 요청하는 것(Call)
- 3단계 : 응급의료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Care)

● 구조 요청시 꼭 알려야 할 정보

- 응급 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 /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 부상자의 상태 정도 / -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 -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부상자 조사와 응급처치 요령

- ① 의식확인 ② 호흡확인 ③ 맥박확인 ④ 출혈확인 ⑤ 얼굴색
- ⑥ 체온·피부상태 확인 ⑦ 골절확인 ⑧ 구토 등 주변상황 확인
- ⑨ 응급처치 ⑩ 기도개방 ⑪ 구조호흡 ⑫ 심폐소생술
- ⑬ 충격예방처치 ⑭ 지혈 ⑮ 상처·골절 처치

산악 안전사고 예방 10대 수칙

1. 산행 전에 산행 코스, 난이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2. 출입금지구역(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셋길 등)은 출입하지 않는다.
3. 기상특보 때는 산행을 금하고, 이동 중인 탐방객은 빨리 하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4. 낙뢰 예보가 있을 때 산행을 삼가 한다.
5.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여 산행 계획을 수립한다.(절대 무리한 산행을 하지 않는다)
6. 충분한 경험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는 암릉·암벽 등반을 하지 않는다.
7. 폭우로 수량이 불어난 계곡은 무리하게 건너지 않는다.
8. 산행 전·후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을 푼다.
9. 계절별로 장비와 복장을 갖춘다.
10. 될 수 있으면 단독 산행을 피한다.

농기계 안전관리 요령

● 농기계 보관창고는 항상 깨끗하게 정돈하자



- 출입구의 폭, 높이는 여유있게 합시다.
- 내부는 충분한 밝기와 환기가 되도록 합시다.
- 농기계 및 공구는 정해진 장소에 둡시다.
- 어린이가 출입하지 않도록 자물쇠를 설치합시다.

● 농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구를 착용하자



- 헐렁하거나 소매가 긴 옷은 입지 맙시다.
- 미끄럼 방지 처리된 안전화를 착용합시다.
- 긴 머리카락은 모자속에 넣거나 묶읍시다.
- 보석류는 빼놓고 작업에 임합시다.

● 농작업 전 · 후에는 반드시 점검정비를 하자



- 점검 · 정비시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합시다.
- 이상 발견시에는 정비할 때까지 사용하지 맙시다.
- 정기교환 부품은 시기에 맞추어 교환합시다.
- 안전장치는 제 위치에 부착하고 떼어내지 맙시다.

● 논 · 밭 출입은 안전하게 하자!



- 출입로는 완만한 경사와 적절한 폭을 유지합니다.
- 이동시에는 속도를 낮추고, 후방 작업기가 무거울 경우 앞쪽에 밸런스웨이트를 장착합니다.
- 논둑을 넘을 때는 직각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 동승자를 태우지 말자!



- 동승자는 운전자의 시야 또는 레버조작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 동승자가 있을 경우 급정지·급회전시에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 음주운전은 절대 않는다!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파괴시키는 사고의 주범임을 명심합니다.
- 음주운전은 침착성과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반응을 어렵게 하여 대형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 등화장치 작동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자!



- ▶ 방향지시등, 후미등, 비상등, 야간반사판 등을 반드시 부착합니다.
- ▶ 등화장치의 작동상태는 수시로 점검하고 무논작업 후에는 반드시 청소합니다.
- ▶ 트레일러에 짐을 실을 때는 뒤에 오는 운전자가 등화장치를 볼 수 있도록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습니다.
- ▶ 야간 또는 악천후에는 반드시 등화장치를 작동하고 감속하여 운전합니다.

농기계별로는...

● 경운기 · 관리기



- ▶ 이동시에는 작업기의 동력을 끊고 합니다.
- ▶ 회전부에 신체를 접촉하지 않습니다.
- ▶ 조향클러치는 저속주행 또는 논·밭에서 작업할 때만 사용합니다.
- ▶ 내리막 길에서 조향클러치는 평지와 반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 ▶ 조향클러치는 짧게 여러번 조작하여 선회합니다.

● 트랙터



- ▶ 타고 내릴 때는 작업화의 진흙을 제거하고 승차용 계단과 손잡이를 이용합니다.
- ▶ 안전 캡 또는 프레임을 장착합니다.
- ▶ 도로 주행시에는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반드시 연결합니다.
- ▶ 경사지에서 등고선 방향으로 작업할 때는 하중이 큰 쪽을 위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 콤바인



- ▣ 콤바인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사다리 길이는 차량적재함 높이의 4배 정도 되게 하여 안전한 경사를 확보합니다.
- ▣ 막힌 짚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합니다.
- ▣ 체인, 양곡기 등에 쌓여 있는 검불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제거합니다.
- ▣ 논둑을 넘을 때는 직각 방향으로 운전합니다.

● 휴대형 예초기



- ▣ 작업 전에 병,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 ▣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합니다.
- ▣ 작업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고, 작업반경 15m 이내에는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제초날을 톱 대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슈재난 관련 보도

9월1일(월)	일 정부, 재해대비 화장지 1개월치 비축 권장(KBS)
	일본 정부가 자연재해에 대비해 가정마다 최소 한 달치의 화장지를 비축할 것을 적극 권장, 화장지 생산업체의 40%가 지진대에 있는 후쿠오카현에 집중돼 있어 최악의 경우 1달 정도가 지나야 화장지의 원활한 공급 가능
9월2일(화)	일본 도쿄, 규모 7.3 강진 시 14만명 사망, 950조원 피해(KBS)
	일본 도쿄대 지진연구소의 지진발생 가상실험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도쿄에서 발생하면 14만명이 사망하거나 950조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됨. 사람이 많이 몰리는 도심상가는 지진 최대 취약지역임. 일본 지진 조사위원회 “도쿄일대 규모 7.0이상 큰 지진이 30년 안에 발생할 확률 70%
9월3일(수)	기획재정부, 예비비 197억 투입...노후저수지,교량 등 긴급안전점검(헤럴드경제)
	노후저수지 250여개, 어항·항만 등 해양시설 220여개, 도로·철도 교량시설 800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80여개 등 총 1,550여개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긴급 정밀 안전점검 실시, 추석전까지 예비비 배정해 올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
9월5일(금)	정부, 안전신문고 설치... 부처간 안전협의체 구성(KBS)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기관 간 협의기구가 구성되고 안전과 재난관련 상황실 기능이 통합되며 모든 국민이 참여해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의사를 개진할 ‘안전신문고’가 설치될 예정. 또한, 예비비 197억 원을 들여 11월까지 노후저수지와 교량, 철도·항만·급경사지 등 노후 위험시설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
9월9일(화)	올해 들어 야생진드기 사망자 10명... 치사율 42% (SBS)
	질병관리본부, 지난 8월말까지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10명 사망, 질병 예방을 위해 추석 성묘를 가거나 텃밭작업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풀밭에 옷을 벗어두지 말고,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털고 세탁하라고 당부
9월10일(수)	호텔·병원 ‘एं테리 방역’... 시공·감리 모두 부실(KBS)
	호텔이나 병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 장식재들은 불에 타지 않게 방염처리 하도록 돼 있는데 경찰이 방염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테리어 업체와 방염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 이런 불량 방염 장식재가 쓰인 건물은 경찰이 확인한 곳만 백 곳이 넘어...



이슈재난 관련 보도

9월 12일(금)	‘집중호우 감시망’ 구축했지만...상생 협력 필요(KBS)
	민간 이동통신사가 집중호우 등의 기상상황 관측장비를 기상정보다 촘촘하게 설치하여 기상청과 지자체에 기상정보를 제공 할 계획, 문제는 유료서비스인데다 관측장소 선정 시 사전협의를 없어 기상청에서도 기상 정보 사용에 신중한 입장
9월 13일(토)	천리안 위성 거대 ‘적조 띠’ 포착... 동해안 위협, 큰 피해 우려(MBC)
	남해안에서 발생한 적조가 동해안까지 위협, 천리안위성 영상으로 살펴보니 바람이 불면 상황은 더 심각... 9월에 적조가 번성한 건 가을장마로 비에 씻겨 내려온 육지의 영양분과 23도 이상의 따뜻한 수온, 짹짹한 햇살의 3박자가 원인...
9월 17일(수)	언론계, ‘재난보도준칙’ 제정... 취재보도 기준제시(KBS)
	한국기자협회·신문협회·방송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세월호 참사 당시 문제가 됐던 재난보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비윤리적 취재 금지 및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취재원에 대한 검증 등의 내용이 담긴 ‘재난보도준칙’발표. 또한, 정부와 재난 관리 당국의 신속 정확한 정보공개와 언론브리핑 매뉴얼 마련 촉구
9월 18일(목)	수난사고 절반 ‘하천’서 발생 (KBS)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난사고 사망자 240명중 132명이 하천에서 숨져... 대부분 수영이나 낚시가 금지된 곳에 들어가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
9월 19일(금)	미래부, 집적정보통신시설 재해·재난 대응체계 강화(아시아경제)
	18일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열어, 지난 4월 삼성SDS 과천 정보통신기술(ICT)센터 화재 이후, 총 62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건물 내·외벽 난·불연자재 미사용, 재해·재난 사고에 대비한 ‘시설보호계획’ 미수립, 구호설비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권고조치...
9월 23일(화)	안전행정부-KBS,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KBS)
	9.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종섭 안행부장관과 조대현 KBS사장 참석,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올해 말로 예정된 제10회 안전문화대상 시상식 공동 주최 및 안전정보 공유, 안전관련 교육 등의 안전문화 활동을 지원하기로...
9월 23일(화)	차세대 통합 재난안전통신망, 내년 시범사업(머니투데이)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 예산 500억원을 정부 예산안(안전행정부)으로 반영, 미래부에서 선정한 기술방식(LTE)에 따라 강원도 지역에서 시범사업 추진 예정. 2016년 8개 시·도 및 2017년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통신망 구축,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통합지휘 및 상호공조가 가능해 효율적 대응체계 기대



자연재난 관련 보도

9월2일(화)	소방방재청, 호우피해 입은 부산·울산·경남에 재난지원금 긴급지원(뉴시스)
	소방방재청은 지난 8.25일 집중호우로 주택·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재난지원금 25억원을 긴급지원(부산 17억원, 울산 6억원, 경남 2억원). 또한 피해주민은 읍·면·동사무소에 한번만 신고하면 국제납기유예 및 지방세·건강보험료·전기요금 감면, 복구자금 용자 등의 지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음
9월5일(금)	중소기업청, 부산·울산·경남지역 호우피해 기업당 최대 10억원 지원(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청은 지난 8.2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중소기업에 10억원 한도, 소상공인에 7천만원 한도로 고정금리 지원(연2.7%). 희망 업체는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 후 재해확인증 발급받아 시중은행에서 융자신청
9월6일(토)	부산광역시, 집중호우 피해주민을 위한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 (파이낸셜뉴스)
	8.25 집중호우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기장군·북구·동래구·금정구 등 수해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운영, 현장방문 및 전화상담 등 찾아가는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9월7일(일)	부산 폭우이재민, '재난구호·복구비용 현실화 해 주오'(뉴시스)
	부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됐지만, 침수·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 대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액수가 적어, 이재민 구호나 주택·농경지 등을 원상 복구 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추가로 건의
9월9일(화)	산림청, 8월 태풍 '나크리' 피해임산물에 3억원 지원(연합뉴스)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전남지역 임산물 피해 임가 423호에 3억원의 재난지원금 지원, 피해임산물은 대부분 뚝은 감으로 피해면적은 491ha에 피해 금액은 247백만원, 그 외 밤, 조경수, 약초류 등 일부 피해발생
9월11일(목)	해양수산부, 제주 중문·색달 해변에 이안류 감시시스템 설치(뉴시스)
	내년까지 제주 중문·색달해변 해수욕객의 안전을 위한 이안류 감시시스템 설치, 파도의 특성(파고·주기·파향 등)을 분석하여 관심·주의·경계·위험 등 4단계 자료제공. 지난해 해운대 해수욕장에 설치된 감시시스템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한명의 인명피해도 입지 않은 효과
9월11일(목)	지구온난화 가속... 대기중 온실가스 비중 사상 최고(뉴스Y)
	세계기상기구(WMO), "지난해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증가로 온실가스 비중이 사상 최고치 기록". 이와 함께 바다의 산성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 감소도 지구온난화 가속의 원인



자연재난 관련 보도

9월11일(목)	<p>녹아내리는 빙하, 인간이 유발(뉴스Y)</p> <p>오스트리아 연구팀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석탄·석유·가스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빙하 근처의 토지개발 등 빙하를 급속히 녹아 내리게 하는 현상의 약 69%가 인간이 원인</p>
9월12일(금)	<p>서울시, 집중호우 때 한강바닥 변화 폭 측정(YTN)</p> <p>서울시는 한강다리를 지탱하는 강 속의 흙과 모래가 집중호우 때 얼마나 쓸려 내려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세굴심도 측정 장치' 자체 개발, 지난달 22일 성수대교에 설치하여 내년까지 정기모니터링 등 세굴 심도 변화 추이를 파악할 계획</p>
9월16일(화)	<p>'침수이력 한눈에' 서울시 풍수해 정보지도 공개(연합뉴스)</p> <p>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풍수해 정보지도'를 홈페이지(safecity.seoul.go.kr)에 공개... 과거 침수이력과 침수 예상지역, 재난발생시 대피경로 및 안전대피소, 재난상황 전파체계 및 재해구호물자 현황 등을 볼 수 있어... 오는 11월까지 하천 재해위험, 토사유출 위험, 방재시설 현황 등도 추가할 예정</p>
9월18일(목)	<p>집중호우 사망자 절반이 '감전사'... 도로위 '전기의 공포'(한겨레)</p> <p>김제남 국회의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2011년~2013년간의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 현황' 자료 분석결과, 가로등·신호등·분전함 등 전국 약 270만개 전기시설물 중 10만개(3.9%) 감전 위험, 안전 부적합 판정 이후 방치되고 시설관리 미흡... 선제적 조치 필요</p>
9월20일(토)	<p>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올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8월"(연합뉴스)</p> <p>올해 8월은 1880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8월. 지난 8월 육지와 해수면 평균기온은 섭씨 16.35℃로 20세기 8월 평균기온 섭씨 15.6℃ 보다 0.75℃ 높았고, 금년 1~8월 기간 평균기온도 기상관측 이래 3번째로 높아 지구온난화 속도에 대해 우려...</p>
9월21일(일)	<p>경남도, 수해피해주민 '심리상담' 돕는다"(아시아투데이)</p> <p>수해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 재난심리지원센터(적십자사 경남지사)가 20일부터 심리상담활동 등을 본격 지원키로...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창원시와 고성군 피해주민을 직접 방문해 상담서비스를 진행 할 계획</p>
9월23일(화)	<p>소방방재청, 태풍 '풍왕' 복상에 따른 피해예방 총력 대응체계 가동(아시아경제)</p> <p>소방방재청은 제16호 태풍 '풍왕' 복상에 따라 22일 태풍대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인명피해 예방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우리나라가 태풍 영향권에 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이재민 조기생활안정을 위해 응급구호세트(57,000개)와 취사도구세트(28,000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80동 준비</p>



사회재난 관련보도

9월2일(화)	서울시, 지하철 안전관리실태 점검... 안전불감증 심각(한겨레) 서울시 감사관실의 지하철역사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발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79,569건의 결함 가운데 보수된 곳은 11%에 불과. 1~4호선 구간(서울메트로)은 균열 62,638건과 누수 710건, 5~8호선 구간(서울도시철도공사)은 균열 15,931건과 누수 335건 발생
9월4일(목)	추석연휴 문 연 병원·약국 알려면 119 콜하세요(경향신문) 추석 연휴기간 응급환자 처치·이송, 전문의 질병상담, 병원·약국안내, 응급처치지도 등 국민편의 증진과 응급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근무체계 가동... 갑자기 아프게 되면 119로 전화하면 문을 연 병원·약국 안내 받을 수 있어
9월5일(금)	문화재청, 목조문화재 불량 불꽃감지기 전량 교체(뉴시스) 문화재청은 승례문 등 목조문화재에 설치한 불량 불꽃감지기 8개 모델에 대해 소방방재청의 교체·폐기명령과 관련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감지기를 전수조사 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불량 감지기는 전량 폐기·교체 조치 예정
9월6일(토)	청와대, 재난대응 전담 '재난안전비서관' 신설(YTN) 재난안전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 그 간 안전업무를 총괄하던 사회안전비서관은 치안분야만 담당
9월7일(일)	제2롯데월드 오늘 시민에 '첫 공개'... "안전 확인 어려워" (MBN)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되는 제2롯데월드,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 현장 안전성을 체험하기 위해 준비된 투어지만, 잘 꾸며진 내부만 구경한 게 전부
9월8일(월)	명절 화재 하루 평균 151건, 평소 117건보다 30% 많아(YTN) 새정치연합 정청래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3년 동안 설·추석 연휴에 발생한 화재는 2,700여건으로 하루 평균 151건 발생, 같은 기간 하루 평균 117건보다 30% 많음. 지난 3년간 명절 연휴 화재로 15명 숨지고 174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9월8일(월)	일본 뎅기열 비상... 감염환자 74명, 도쿄 도심공원 폐쇄(연합뉴스) 일본 후생노동성은 뎅기열 환자가 증가하자 도쿄 일부공원 내 뎅기열 모기 서식 여부를 조사하고 도쿄 도심공원인 신주쿠교엔(신주쿠와 사부야구에 걸쳐진 58ha 공원)을 폐쇄
9월9일(화)	심폐소생술 교육, 생존율을 바꿨다(YTN) 서울시 노원구, 2012년 5월부터 평일 하루 3회, 토요일 1회, 주중 야간 2회 등 한 번에 30명씩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지금까지 모두 4만 5천명의 주민이 심폐소생술 배워... 심정지환자 생존율이 과거 2010년 5.6%에서 3년새 12.7% (2.3배)로 성과 이뤄...



사회재난 관련보도

9월10일(수)	최근 4년 간 국립청소년수련원 안전사고 257건 (YTN)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립청소년수련원 5곳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257건, 그 중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곳은 국립평창수련원으로 130건이었고, 특히 프로그램 진행 중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프로그램 내용을 재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9월12일(금)	‘재해위험 가장 큰 도시’에 일본 도쿄... 로마의 35배 달해 (경향신문)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가 일본의 55개 도시와 세계 45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지진·쓰나미·해일·홍수·산사태 등의 재해위험도를 종합·산정한 결과, 가장 위험한 도시 1·2위는 도쿄(재해위험도 35)와 오사카(22)... 서울(3.1)은 낮은편
9월13일(토)	30년 노후 철도시설물 ‘절반’가량... 안전사고 위험(폴리뉴스)
	철도교량 및 터널 노후 현황은 30년 이상 된 철도교량 1,266개(42%), 철도터널 299개(44%)에 해당하며, 50년 이상 된 철도교량 802개(27%), 철도터널 208개(30%)나 되며, 더욱이 노후 시설물 개량 및 보수 예산은 전체 철도 4조7000억원 중 6%인 3,050억원에 불과, 예산확보 등 대책 마련 시급...
9월13일(토)	재난 시 의료 지원 규정 매뉴얼 하나로 정리한다(국민일보)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의료를 위한 비상대응 매뉴얼의 내용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전국 어디라도 30분 이내에 훈련된 의료진이 출동해 현장 응급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
9월15일(월)	‘실제 구조현장처럼’, 군 재난교육센터 개소 (YTN)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형재난에 대비한 전문 재난안전교육센터 개소, 군인과 일반 국민들에게 교육과정 제공 예정
9월19일(금)	사찰방재예측시스템이 장경사 화재 막았다(법보신문)
	9월16일 경기도 광주 장경사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지난해 2월 설비된 사찰방재 예측시스템이 화재를 감지하고 이를 주지스님 핸드폰과 사찰종무소, 설비업체에 동시에 보내져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화마로부터 정보를 지켜...
9월20일(토)	경찰관서 위험... 29곳 재난위험등급 받아(이뉴스투데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본청 지방경찰청 17개, 경찰서 250개 및 지구대 파출소 1,950개 중 29개 경찰관서가 보수가 시급하기나 철거해야 하는 안전등급 ‘D’와 ‘E’ 등급 받아...



소방재난 관련보도

9월6일(토)	<p>소방방재청, 주간(9.7~9.13) 안전사고 예보 발표(조선일보)</p> <p>(산악) 가을철 발열성 질환, 풀 위에 그냥 앉으면 위험! (화재) 명절음식 할 때, 불조심! 자리 비움 안 돼!</p>
9월7일(일)	<p>소방방재청, 민방위 마스코트 민이와 방이 선정(헤럴드경제)</p> <p>민방위에 대한 공감대와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마스코트를 4.15일부터 3개월 간 공모 받아 경광등과 삼색마크를 활용해 민방위를 표현한 ‘민이와 방이’ 선정</p>
9월 14일(일)	<p>소방방재청, 인천아시안게임 소방안전 통합무선망(TRS) 구축(뉴시스)</p> <p>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9.19~10.4) 경기장이 위치한 4개 시·도(인천·서울·경기·충북)의 안전대책 등 주요상황 공유 및 비상 시 협력·지원을 위해 소방본부 간 통합무선망(TRS) 구축</p>
9월 16일(화)	<p>마뉴엘 베슬러·폴 벡스트 청장, 소방방재청 예방(뉴시스)</p> <p>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15일 오후 스위스 마뉴엘 베슬러 INSARAG(UN 국제탐색 구조자문단) 세계의장과 뉴질랜드 폴 벡스트 소방청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INSARAG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p>
9월20일(토)	<p>소방방재청, 주간(9.21~9.27) 안전사고 예보 발표(조선일보)</p> <p>농기계 사고의 60%는 경운기! 내리막·급커브 길 감속운전. 가드레일 없거나 농로 가장자리 풀 많은 곳 주의 필요</p>



자연재난 관련 보도

- 10월02일(수) 농림축산식품부, 태풍 ‘피토’ 복상... 피해예방 총력(세계일보)
벼·과수 사전점검 및 조기 수확 독려, 피해 우려지역에 지역담당관 급파 등
- 10월03일(목) 경기도 학교건물 64%, 지진에 무방비(연합뉴스)
학교건물 64% 내진설계 미반영, 보강공사 200개교 우선 추진, 이 계획조차 지지부진
- 10월03일(목) 제주도, 태풍 ‘피토’ 복상 대비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제민일보)
2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피해 우려지역 예찰활동 등 사전대비 강화
- 10월04일(금) 소방방재청, 동남아 재난담당 공무원 연수(헤럴드경제)
동남아 관리자급 공무원(14명), 급경사지 관리제도, 현장방문을 통한 국내기술 전수
- 10월04일(금) 최근 3년간 자연재해 복구액이 피해액의 2배(이코노미 세계)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증가, 지자체별 특성 고려, 예방위주 재해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
- 10월06일(일) “서울 절반, 빗물 스미지 않아”...침수피해 우려(뉴스1)
지난해 전국 평균 불투수면적률 7.9%, '70년에 비해 2.63배 증가, 서울 54.4% 가장 높아
- 10월07일(월) 중앙재난대책본부, 태풍 24호 ‘다나스’ 복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개최(뉴시스)
소방방재청장 주재, 태풍 복상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체제 강화 당부
- 10월07일(월) 환경부, 전 국토조사결과 불투수 면적률 전국 평균 7.9%(정책브리핑)
전국 수계·임야제외하면 22.4%, 부천시 61.7%로 최고, 결과를 토대로 제도 마련 계획
- 10월07일(월) 국내 공공시설물 38%만 내진성능 갖춰(연합뉴스)
지난해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을 38.4%, 학교 21.7%, 고속철도 16.7% 등, 내진성능 확보 미흡
- 10월07일(월)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모기 예보제’ 국내 최초 도입(환경일보)
모기발생 가능성 지수화(1~4단계)해 모기발생예보단계 발령 및 행동요령 제시
- 10월08일(화) 鄭 총리, 태풍 ‘다나스’ 복상... 철저한 대비 지시(뉴시스)
국무회의 모두 발언, 철저한 상황관리와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 당부
- 10월08일(화) 창원소방본부, 태풍 ‘다나스’ 복상 대비 비상근무 돌입(news 1)
태풍예비특보에 따라 관서장 정위치 근무, 수방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 등



자연재난 관련 보도

- 10월08일(화) 제주교육청, ‘재난·위기 매뉴얼 활용’ 태풍 철저대비 지시(아시아통신)
태풍 ‘다나스’ 대비, 학생 행동요령 교육 및 학교 시 철저한 학생안전지도 강조
- 10월09일(수) 태풍 동해로 이동 중... 9일 오후 日 해상서 소멸(뉴시스)
제24호 다나스, 한반도를 비껴가면서 큰 피해 발생가능성 적은 것으로 예상
- 10월09일(수) 긴장 속 24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하루(뉴스와이)
15년 만에 찾아온 10월의 불청객 태풍, 중앙대책본부는 길고 긴 하루를 숨 가쁘게 보내...
- 10월09일(수) KTX 교량 160개 중 80곳 지진에 무방비(뉴시스1)
윤후덕 의원,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님, SOC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등 신경 써야...
- 10월10일(목) 울 한반도 태풍 사실상 끝났다(헤럴드경제)
저위도에서 태풍발생, 유동성 크지만 현재 북대서양고기압 남하로 향후 국내영향 가능성 낮아
- 10월10일(목) “고맙다 다나스” 울산 장기 가뭄 해갈에 도움(CBS)
최대 식수원 회야댐 등 3개댐의 저수율 상승, 낙동강 원수공급 중단·원수구입 부담금 절감효과
- 10월14일(월) 고마운 태풍 ‘다나스’... 가뭄 해갈 큰 도움(YTN)
회야댐에 6백만톤의 물 유입... 원수대금과 물 이용부담금 포함 23억원 비용절약 효과
- 10월15일(화) 설악산 대청봉 첫 눈... 16일부터 추워져(TV조선)
첫 눈 치고는 제법 많은 4cm 기록, 지난해보다 15일 빨라, 주말까지 쌀쌀한 날씨
- 10월15일(화) 한국화재보험협회, 자연재해보험 발전 세미나 개최(10.15, 파이낸셜)
해외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방법 및 풍수재위험도지수 산출 모델 추진현황 소개 등
- 10월16일(수) 소방방재청, 올해 자연재해 인명·재산피해 80% 이상 감소(아시아경제)
올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결과,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수준(인명피해 90% ↓, 재산피해 84.3% ↓)
- 10월16일(수) 건설연, ‘수문레이더 재해연구·데이터 센터’ 개소(한국주택신문)
10.21일 개소, 홍수·폭설로 인한 재해상황 모니터링 및 사전예측 등 효과적 재해관리 기법 가능



사회재난 관련 보도

10월01일(화)	조달청, 국민안전사고·생활환경 저해 등 조달물품 집중점검(헤럴드경제) 10월말까지, 안전사고 유발하는 맨홀뚜껑, 방음벽 등 생활환경 저해물품 품질점검
10월01일(화)	제주교육청, ‘학교현장 재난·위기 대응매뉴얼’ 발간(아시아뉴스통신) 교육(태풍·호우·폭염·화재 등 9종)·훈련, 위기대응매뉴얼(2종)을 발간, 각급 학교에 비치·교육
10월01일(화)	서울시, 세계불꽃축제 대비 특별교통대책 마련(뉴스1) 10.5, 축제로 인한 여의도한강공원 교통혼잡 대비 주·정차 단속, 도로우회 및 대중교통 증편 등
10월02일(수)	소방방재청장 기고, 재난·안전분야의 R&D는 블루오션(대전투데이) 재난안전 신기술개발, 안전문화 창출, 미래재난, 안전문제 등 연구가 중요한 시기
10월02일(수)	소방방재청, 산악 및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아시아투데이) (산악) 사전 산행정보 습득·계획된 산행 (농기계)음주운행금지·적정량 적재, 등화장치 부착 등
10월02일(수)	에어커튼(Air Curtain)으로 터널 화재시 대피로 만든다(건설경제) 터널 내 고온의 화재연기, 고압의 공기막으로 차단(건기연·방재청 등 공동개발)
10월02일(수)	경북도, LP가스사고 제로(Zero)화... 안전점검 실시(헤럴드경제) 10.1~31, LP가스 취급시설(충전소·판매소·집단공급) 1,006개소 대상, 공급자위주 점검
10월03일(목)	경기도, 캠핑장 환경·안전 가이드라인 만든다(연합뉴스) 환경·안전 등 문제점 노출, 올해 말까지 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 관리지침 마련
10월04일(금)	인천시, 146곳 소방차 진입불가...불법주정차 등 원인(연합뉴스) 소방차 진입불가 원인순, 상습불법 주정차(51%) 최고, 도로협소(36%), 장애물 적치(13%)
10월04일(금)	지하차도 안전시설물이 오히려 애물단지로(경기일보) 지하차도 안전시설물 관리소홀로 긴급상황 시 식별 애로·정상작동 우려



사회재난 관련 보도

10월05일(토)	가을밤 수놓은 서울세계불꽃축제... 100만 인파 흘렸다(뉴시스) 만일 사태 대비, 경찰 1,000여명과 소방인력 103명 및 소방차 28대 근접배치
10월05일(토)	경기 팔당수질개선본부, 취수장 '녹조유입 차단' 기술 개발(news 1) 기존 환경부 개발 흙탕물 차단막 시스템 응용, 녹조유입 원천차단하는 방법
10월05일(토)	전남도, 노후저수지 62곳 긴급 정비 필요(뉴시스) 준공된 지 50년 넘는 1,677개 저수지 점검결과, 누수에 매우 취약한 상태
10월06일(일)	원전 고리 1호기, 6개월 만에 재가동(한국경제) 4.12일부터 계획예방정비, 5일 08시부터 발전 재개, 6일 19시30분께 100% 출력 도달
10월06일(일)	부산경찰, 행락철 대형사고 예방 교통안전 강화(한국경제) 10~11월, 행락지 주변 위험도로 안전점검,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교육·홍보 강화
10월06일(일)	올해도 역시...불꽃축제 뒤 아수라장(TV조선) 5일 여의도 불꽃놀이 100만 인파 몰려 부상 33명, 쓰레기 대란 및 교통혼잡 등 무질서
10월07일(월)	산림청,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마련(뉴시스) 다부처의 공간정보 교차분석 체계로 산불·산사태 피해발생 최소화
10월08일(화)	키즈카페 안전사고 매년 2배로 늘었다(문화일보) 올해(8월) 위해사례 49건('11년 12건, '12년 27건), 절반이 매장 설비에 부상(한국 소비자자원 조사)
10월08일(화)	보수·보강 시급한 D등급 주요시설물 21곳(건설경제신문) 안전진단 이후에도 보강작업 없어... 수년째 보강계획만 수립하고 예산 미확보
10월09일(수)	유해화학물질 대응장비·물품 노후율 심각(뉴시스) 유대운 의원, 소방관 장비 부실은 심각한 문제, 국고지원 등 늘려 장비·물품 갖춰야...
10월10일(목)	최근 5년간 건설업, 산업재해율 증가...안전대책 마련 시급(건설경제) 전체 산업재해율 감소('08년 0.71%→'12년 0.59%)에 반해 건설업은 증가('08년 0.64% →'12년 0.84%)



사회재난 관련 보도

10월 10일(목)	고용부, 자동차·철강업계 산업안전대책 토론회 개최 불산누출·화재·폭발·질식사고 등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추진방안 논의,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당부
10월 10일(목)	광주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출범(아주경제) 공공기관·시민단체 등 35개단체, 시민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실천 총괄 역할
10월 11일(금)	소방방재청, 주간(10.13 ~ 19) 안전사고 예보(뉴시스) 야간 시골길, 농기계 교통사고 최다 발생 조심! 농기계 뒷면에 야광반사판 부착 철저
10월 12 (토)	산악사고 가을 단풍철에 집중(YTN)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1/4이 10~11월에 집중, 지정 등산로 이용 등 필요
10월 12 (토)	붕괴위험 학교 107개동, 그대로 이용 중(뉴시스) 서상기 의원, 예산 미확보와 학생수용 공간부족 때문, 교육당국 즉각 조치 필요
10월 13(일)	교통안전공단, 대형 교통사고 10~11월 최다 발생(국방일보) 최근 5년간('08~'12) 교통사고 분석결과 10~11월중 18.2%로 최다, 대형·음주사고 각각 19%, 18.3%
10월 13(일)	전국 123개 초·중·고교 “재난위험시설”...교육시설 안전 비상등(cnews) 전국 12,357개 초·중·고교 중 재난위험시설 123개, 서울 28.4%, 전남 20.3%, 경북 14.6% 순
10월 13(일)	단풍철 맞은 울산...산악사고 매년 급증(뉴스1) '07년 109건에서 '10년 142건, '11년 163건, '12년 204건으로 사고건수 매년 증가
10월 13(일)	제주해경,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예방한다(제주도민일보) 10.21~11.1, 어선내 폐기물 해양 무단투기, 수상레저시설 등의 오염물질 처리사항 등 중점 점검
10월 14(월)	건설연, 하루만에 조립 가능한 이재민 임시주택기술 개발(아주경제) 기존 임시조립주택(3×6m) 보완, 레고블럭 형태... 전기·상하수도 설비도 현장조립 가능



사회재난 관련 보도

- | | |
|-----------|---|
| 10월 14(월) |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70%가 ‘골절’... 안전대책 미흡(이데일리)
김민기 의원, 지난 해 139건 중 골절상 97건 발생... 올해는 9월까지 77%에 달해 |
| 10월 15(화) | 등산객 사고 급증... 음주만은 제발(헤럴드경제)
산악사고 10월 집중, 추락사 가장 많아, 탐방객 많은 북한산 최다 발생, 주의 요구 |
| 10월 15(화) | 정부기관 헬기 운영 부실, 통합 안전관리 시급(뉴시스)
안효대 의원, 일부 계기조종 무자격 등 부실, 통합적 헬기 안전관리 시스템 필요 |
| 10월 16(수) | 제주해경, ‘바다 안전도우미’ 발대식(제주도민일보)
11.1일, 해상 치안수요에 효율적 대응 및 연안 해역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협력체 운영 |
| 10월 16(수) | 인천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유지관리 실시(시민일보)
동절기 도로파손 예방, 교통안전 위험해소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유지관리 |



소방 관련 보도

10월01일(화)	소방방재청장, 전국 소방지휘관 워크숍 개최(정책브리핑) 소방방재청장·안행부 1차관 특강 및 동절기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당면현안 논의
10월03일(목)	강원도, 맞춤형 특수구조대 창단(YTN) 항공·산악·수난구조대 확대 통합, 향후 테러·설상구조대까지 추가 편성 예정
10월04일(금)	소방차 진입불가 구간에 비상소화함 설치 28%에 그쳐(뉴스1) 쪽방촌 등 영세 건축물촌 등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대책 마련 시급
10월04일(금)	서울 25개구 중 소방서가 없는 곳은 어디...(머니투데이) 소방서가 없는 성동구·금천구 중, '17년 성동구에 소방서가 생기면 금천구만 남는다.
10월05일(토)	창원소방본부, '비상구는 생명의 눈' 홍보 캠페인(이뉴스투데이) 4일 진해구 중앙시장 및 충무동 일대,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화재취약대상 중심
10월09일(수)	갈수록 느려지는 119 도착시간...최대 2.5배 차이(뉴시스) 김현 의원, 소방관 증원과 재정지원 등 소방인프라 확충, 긴급차량에 대한 의식변화 시급
10월12일(토)	소방방재청장, 제2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대회사(news 1) 중앙소방학교(10.10~11), 전국 소방전술 및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소방로봇 경연
10월13일(일)	광주소방본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아세아경제) 화재위험이 높은 8종에 대해 당초 연면적 5천㎡→2천㎡ 이상으로 확대, 점검
10월14일(월)	소방공무원에 폭행·폭언 5년간 600건 넘어(아시아경제) 백재현 의원, 해마다 증가해 2011년 88건 → 지난해 180건... 올해는 9월까지만 184건
10월14일(월)	인천소방안전본부, '전국체전(10.18 ~ 24) 안전 지원한다'(news 1) '소방안전지원단 발대식' 가져... 10.16~25까지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
10월15일(화)	강원소방본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마련(연합뉴스) 내년 2월말까지,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화재취약 시기별 특별경계근무 등

10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인 쇄 : 2014년 9월

발 행 : 2014년 9월

발행처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발행인 : 재난상황실장 이상권, 소방상황실장 변수남

편집실무 : 시설사무관 강민서, 소방경 조광식, 주무관 문균호

전 화 : 02) 2100-5034

팩 스 : 02) 2100-5039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11호

인쇄처 : 제일기획 02) 2269-8900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2014년
10월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